

코스피	4004.85 (+75.34)	코스닥	891.94 (+20.62)
금리 (연이자율)	2.908 (+0.039)	환율 (원/달러)	1468.75 (+3.15)

엔저·日中갈등... 韓 수출·외교 압박

‘日리스크’ 韓경제 변수 부상
엔화 추락에 원화도 ‘동조
대만해협 위기, 불확실성 ↑
韓 반도체·물류 충격 불가피

엔저와 일(日)·중(中) 갈등으로 촉발된 ‘일본 리스크’가 부상하고 있다. 엔화 약세는 한국과 일본의 산업 형태가 비슷해 우리의 수출경쟁력 약화를 불러온다. 또 지정학적 리스크는 대(對)중국 외교적 ‘균형’ 전략에 부담이다. 대만해협 위기가 고조되면 우리나라의 반도체·물류·에너지 부문의 충격이 불가피하다.

◆ **일본, 대규모 완화정책 시행**
20일 니혼게이지(닛케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오는 21일 2025회계연도를 위한 14조엔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한다. 이는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지난 2020년을 제외하면 2013년 이후 최대 규모다.

해당 재원은 난방 보조금, 유류비 지원 등 물가 안정 및 소비 부양책에 사용되며, 닛케이 등 투자·용자 등 비용을 흡수한 총재원이 20조엔을 넘길 것으로 내다봤다. 20조엔은 일본의 연간 총생산(GDP)의 3.3%에 해당하는 규모로, 시장에서는 대규모 유동성 공급에 따른 소비 활성화와

함께 엔화 가치 하락 전망이 확산했다.

다카이치 사에 일본 총리는 지난달 취임 이전부터 적극적인 양적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으며, 아베 신조 내각 당시의 ‘아베노믹스(아베+경제를 뜻하는 Economics의 합성어)’에 이를 빚댄 ‘사나에노믹스’라는 단어도 사용되고 있다.

◆ **10개월 만의 ‘초엔저’... 원화 영향 불가피**

일본 정부가 적극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엔화 가치의 지표가 되는 엔·달러 환율은 지난 19일 달러당 157엔 수준까지 상승(엔화 가치 하락)했다. 일본은행(B.O.J)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엔화가 강제 전환한 올해 1월 말 이후 최고치(엔화 가치 최저)다.

지난 19일 원·달러 환율은 주간 증가(오후 3시 30분 증가) 기준 1465.6원을 기록했다. 환율이 장중 1470원을 넘겼던 지난 13일과 비교해서는 소폭 낮아졌지만, 정부의 개입에도 고공행진을 지속했다.

엔화의 약세는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한다. 비(非)기축통화인 원화는 산업구조가 비슷한 일본의 엔화를 추종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한·일 양국은 수출경합도도 높아, 엔화의 약세는 수출



한미연합 도하훈련 실시

한미연합 도하훈련이 실시된 20일 경기 여주시 연양동 남한강 일대에서 한미장병들이 부교를 설치하고 있다. 2025 호국훈련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훈련에는 육군 제7공병여단과 11기동사단, 미2사단, 한미연합사단 등 800여 명이 참가했다.

한미연합 도하훈련이 실시된 20일 경기 여주시 연양동 남한강 일대에서 한미장병들이 부교를 설치하고 있다. 2025 호국훈련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훈련에는 육군 제7공병여단과 11기동사단, 미2사단, 한미연합사단 등 800여 명이 참가했다.

상품의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에 영향을 준다. 산업연구원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지난 2024년 3분기 기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경합도는 46.8(100에 가까울수록 경쟁이 치열함)로 주요국 가운데 1위다.

(3면에 계속)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신문 ‘아파트의 미학 休&休’ 2025 조경 우수 아파트 시상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이 ‘메트로 아파트 조경 대상 휴엔휴(休&休)’의 주인공을 선정합니다.



지난해 ‘조경혁신대상’을 수상한 GS건설 ‘복수원 자이렉스비야’.

올해 메트로신문 ‘아파트의 미학 휴엔휴’에

소개된 아파트 가운데 ▲조경혁신상 ▲친환경단지상 ▲스마트환경상 ▲미래가치대상 ▲테마조경상 ▲브랜드혁신상 ▲커뮤니티혁신상 등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린 조경, 스마트 첨단 기술의 융복합 구현, 녹지공간 등 아름답고, 편안한 아파트단지 선정을 통해 건설사와 입주민을 응원하기 위한 조경대상입니다.

‘2025 metro 아파트 조경대상 휴엔휴’는 올해 소개된 30여 곳을 대상으로 대학 교수 등 전문가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1차,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시공사는 물론 아파트 주민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 심사방식 : 소개 아파트단지 대상, 심사위원 합의로 선정
- ◆ 수상 명 : 조경혁신상 미래가치상 스마트환경상 등
- ◆ 수상작 선정 : 11월 27일



코스피 4000선 탈환 AI 모멘텀 회복에 반등

엔비디아 호실적에 투심 자극
뉴욕·아시아 증시 일제 상승

행하는 단계에 와 있다”고 덧붙였다.

엔비디아가 코스피를 다시 4000선에 올려놨다. 삼성전자는 ‘10만 전자’를 탈환했다.

코스피 상승은 반도체가 이끌었다. 삼성전자는 4.25% 상승해 ‘10만 전자’ (종가 10만600원)에 올라섰다. SK하이닉스는 1.60% 상승했다.

20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1.92% 오른 4004.85에 마감했다. 최근 인공지능(AI) 거품론이 불거지며 코스피는 18일 증가 기준 4000선이 붕괴됐다. 하지만 전날 인공지능(AI) 붐을 이끄는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투심을 자극했다.

전날 뉴욕증시도 ‘엔비디아발 훈풍’이 거세게 불었다. 다우평균은 0.1%, S&P500 지수는 0.4%, 나스닥은 0.6% 올랐다. 특히 장막판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기술주 전반에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 엔비디아(2.9%), 알파벳(3.0%), 테슬라(0.7%), 애플(0.4%) 등 주요 종목이 일제히 상승하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엔비디아는 올 3분기(8~10월) 매출 570억1000만 달러, 주당순이익(EPS) 1.3달러를 기록했다.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클라우드 GPU는 사실상 품질 상태이며, AI 생태계는 각국·각 산업으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며 “새 AI 모델 개발사와 스타트업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 주요 증시도 상승했다. 일본 닛케이225는 2.65% 급등했고, 호주 ASX 200과 대만 자취안 등도 반등했다.

이어 “AI는 이미 모든 곳에 스며들어 동시에 여러 작업을 수

월가와 국내 증권가에서는 “AI 거품 논란은 진정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4면에 계속) /신하은 기자 godhe@

1경원 시장 ‘피지컬 AI’... 소부장·센서 투자가 관건

2025 뉴테크놀로지 포럼
유태준 “물리적 투자 필수”



19일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 주최로 열린 ‘2025 뉴테크놀로지 포럼’에서 유태준 마우시 대표 겸 한국피지컬AI 협회장이 기조강연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생성형 AI 열풍이 채 식기도 전에, 기술·산업계의 화두는 로봇과 자율주행 등 ‘물리 세계의 AI’로 확장된 피지컬 AI로 이동하며 새로운 무인화 혁명이 본격화하고 있다.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가 20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피지컬 AI가 바꾸는 산업지형’을 주제로 ‘2025 뉴테크놀로지 포럼’을 개최했다. 행사는 생성형 AI를 넘어 물리적 세계로 확장되는 피지컬 AI의 미래와 한국의 대응 전략이 집중 논의됐다. (관련기사 L7·L8면)

이날 축사는 이혜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과 조풍연 한국IT·S W총연합회 회장, 유태준 피지컬 AI협회 협회장이 맡았고 개회사는 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가 했다. 이장규 대표는 고(故) 이견

희 삼성 회장이 1996년 젠슨 황 엔비디아 CEO에게 편지를 보냈던 일화를 언급하며 “미래를 보는 통찰력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정치적 레토릭보다 돈이 말하는 진실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번 포럼이 피지컬 AI라는 거대한 파도를 선점하는 계기가 되길 당부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유태준 한국 피지컬AI협회장은 “피지컬 AI는 소프트웨어의 한계를 넘어 로봇, 자율주행 등 물리적 실체와 결합하는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정의했다. 유 회장은 “지난해 대선 당시 ‘AI 예산 100조’ 공약이 GPU 구매에만 쏟아지는 것을 우려해 협회를 결성했다”며 “센

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물리적 생태계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분야 전문가들은 피지컬 AI가 가져올 ‘1경원’ 규모의 시장 기회와 과제를 제시했다.

고태봉 iM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전 세계 GDP의 60%를 차지하는 육체노동 시장의 10%만 로봇이 대체해도 약 1경 원 규모의 시장이 열린다”며 이를 ‘인류 최초의 무인화 혁명’으로 규정했다. 그는 “중국이 빠르게 치고나가고 있지만,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은 ‘AI 레디 바디(AI Ready Body)’를 갖춘 국가로서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서현 기자 seoh@

메트로 한줄뉴스



- ▲與 “패스트트랙 사건 선고, 법과 원칙따른 분명한 결론내야”
- ▲장동혁, 3선 중진들 만나 “투쟁 동력 살릴 것” ... 패트 1심 선고 촉박

- ▲조원철 법제처장, EU대사 면담... ‘법제 협력’ 강조
- ▲김종민 의원, 민주당 복당 첫 공식 언급... ‘민심 듣고 결정’

- ▲與특위 “사법부 계엄 협조 의혹 수사해야... 압수수색 촉구”
- ▲1800t급 잠수함 탐지·공격능력 강화... 성능개량 사업 착수

최태원 “2030년 역성장 우려… 공정거래법 등 손질해야”

〈SK그룹 겸 대한상의 회장〉

대한상의, 기업성장포럼

“규모 중심의 규제, 과거에 머물러
현 성장패턴 고려 개정 고민해야”

최태원 SK그룹 겸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이 인공지능(AI) 경쟁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낡은 규제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법과 금융 규제를 비롯한 기존 제도를 전면 재정비하지 않으면 국가 경쟁력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다.

20일 서울 영등포구 CCMM빌딩에서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개최한 ‘제2차 기업성장포럼’에서 최 회장은 한국 경제의 성장 구조가 지난 수십 년간 크게 약화돼 왔으며 민간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0일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제2차 기업성장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성장 동력의 붕괴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최 회장은 “30년 전 한국 경제는 9.4% 성장했고, 이 중 8.8%포인트(p)를 민간이 만들어냈지만 지난해 민간 기여도는 1.5%p까지 떨어졌다”며 “이 추세를 반전시키지 못하면 2030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에 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장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면 자본과 인재가 해외로 빠져나가 국가 경쟁력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 회장은 규제 체계의 고착을 ‘성장의 발목을 잡는 핵심 요인’으로 규정했다. 그는 자산 5조원 기준의 기업집단지정 2009년 이후 16년째 유지되고 있고, 공정거래법을 근거로 한 규모별

규제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중견기업은 94개, 상호출자제한기업은 343개의 규제를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기업 규모 중심 규제는 과거 성장기에는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의 성장 구조에는 맞지 않는다”며 “공정거래법이 현 성장 패턴에서도 유효한 규제인지, 어떻게 개정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AI 시대에 맞춘 제도적 대전환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AI 경쟁은 결국 사이즈와 속도의 싸움”이라며 “성장 모멘텀을 확실히 마련하지 못하면 AI 게임에서 뒤처지고, 그 이후 국가의 운명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도 거론했다. 그는 “AI 데이터센터 1기가와트(MW)

규모를 짓는 데만 70조원이 필요하고, 최소 10기를 구축하려면 700조원이 든다”며 “현재 금융 규제와 자본 구조로는 이런 투자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과 금융권이 어떻게 자금과 역량을 집중해 제때 투자를 실현할지에 대한 해법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도 재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벤처 1·2세대에서 유니콘이 배출된 이후 성장이 사실상 멈춰 있다”며 “AI 기반 스타트업을 기존 벤처 생태계와 동일한 방식으로 키워서는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기반 스타트업을 별도 체계에서 육성해 국가 AI 전환(AI X)을 이끌 기업으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뉴삼성’ 리더 누가 될까… 사장단 인사 임박

삼성전자, 퇴임임원 통보 시작
이르면 오늘 사장단인사 가능성

삼성전자의 올해 정기 사장단 인사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반도체 부문 등 핵심 계열사 중심으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예고되고 있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오전부터 퇴임 인원들에 대한 통보 절차를 시작했으며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삼성 계열사에도 퇴임 통보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올해 정기 사장단 인사도 이르면 21일 진행될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통상 삼성전자는 임원 퇴임 이후 신입 사장단을 구성하고 1~2일 이내에 후속 임원 인사를 진행해왔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11월 말에 사장단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양성운 기자 ysw@

인사를 발표해왔는데, 올해는 이보다 인사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는 21일 또는 내주 초에는 사장단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하고 있다.

올해 삼성전자 사장단 인사 규모가 대폭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재용 회장이 사법 리스크를 떨쳐낸 뒤 처음으로 단행하는 인사이며 그가 구상하는 ‘뉴삼성’ 미래 비전도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7일 사업지원태스크포스(TF)를 사업지원실로 개편해 상설화하고 박학규 사장을 사업지원실장으로 임명했다. 사업지원TF가 사실상 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던 만큼, 사장단도 새롭게 꾸려질 수 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핵심 계열사인 반도체를 담당하는 DS부문과 완제품을 맡는 DX부문에 대한 변화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회장은 최근 AI, 반도체, 바이오 등 기술 인재를 중시하는 인사를 단행해 왔다.

/양성운 기자 ysw@



이집트를 공식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9일(현지 시간) 카이로 국제공항에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이집트 ‘비전 2030’ 파트너는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 이집트 정상회담
현시 삼성·LG공장 등 언급하며
한-이집트 수교 30주년 인연 강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중동·아프리카 4개국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이집트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카이로대학 연설을 통해 대(對)중동 구상을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0일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압델 파타 엘 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한-이집트 정상회담 및 공식 오찬 일정을 가졌다.

오후에는 카이로대학 연설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對)중동 구상을 밝히고, 저녁에는 재외동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중동 국가와의 협력 확대를 언급했다.

이집트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이어 이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방문하는 두 번째 중동 국가다. 이집트는 우리와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으며, 올해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집트 언론 알-아흐람에 기고문을 통해 이집트에 대해 “이집트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비전 2030’의 가장 신뢰할만한 파트너가 대한민국이라 자신 있게 말씀드리다”며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한국이 ‘나일강의 기적’을 일궈낸 이집트인들의 원대한 여정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고문에서 이집트 베니수에프주의 삼성 공장, 사르키아주의 LG 공장, 한국 기업이 만든 카이로의 메

트로 전동차, 그리고 내년에 선보일 이집트산 K-9 자주포 등을 언급하며 1995년 수교한 이집트와의 30년 인연을 강조했다.

교육과 문화를 통한 인적 교류도 양국 관계 발전의 원동력이라며 “한국과 이집트 국민이 서로에 대해 갖는 호감과 친근함은 양국 관계의 자양분이자 모든 협력의 가장 튼튼한 기초”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함께 한 30년 간의 동행은 이제 미래로 향한다”며 “한국과 이집트가 만들어 나갈 모든 미래의 기본적 토대는 ‘평화’”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지지구 사태 속 중재를 노력하는 이집트와 한반도 평화를 추구하는 한국의 공통점을 언급하며 “중동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꾸준히 동참해 온 한국과, 한반도 평화를 일관되게 지지해 온 이집트 간 ‘평화 협력’의 폭이 앞으로 더 넓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남북 대화가 단절되고, 북핵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방지해선 안 되며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며 “이를 위해 가능한 분야에서부터 남북 간 교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제사회의 관계 정상화 노력도 적극 지원하며, 실용적, 단계적 해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 문화, 평화 등 각 분야에서 이뤄질 양국의 협력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서예진 기자 syj@

韓-UAE, 원전시장 제3국 공동진출 추진

이재명 대통령 UAE 국민방문 계기
한전-UAE원자력공사 MOU 체결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원전·에너지 협력 관계를 차세대 기술과 제3국 시장으로 확장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UAE 국민 방문을 계기로 한국전력과 UAE원자력공사(ENEC)가 미래 원전 신기술·AI 활용·글로벌 시장 공동진출을 위한 협력 MOU를 체결한 데 이어, 산업통상부도 양국 간 원전·자원 분야의 제3국 진출 모델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며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한국전력은 지난 18일 UAE 대통령 궁에서 ENEC와 ‘원자력 신기술, AI 및 글로벌 시장 협력 파트너십(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국 정상 임석하에 체결됐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며, SMR(소형모듈원자로) 공동평가, AI 기반 원전 운영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공동연구 등 미래 원전 생태계 전반으로 협력 범위를 확장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특히 제3국 원전시장 공동진출이 명

시적으로 포함되면서, 바라카 원전의 성공 경험을 토대로 양국이 글로벌 수출 파트너십을 정식화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19일 모하메드 알 하마디 ENEC 사장과 별도 면담을 갖고 “글로벌 파트너십 모색에 양사가 총력을 다해야 할 때”라며 공동진출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양사가 쌓아온 신뢰와 성과가 미래 협력의 큰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협력안을 논의했다. 이에 대해 알 하마디 사장은 “세계 원자력 분야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며 “UAE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함께 창출할 가치가 크다”고 화답했다.

한전은 지난 2009년 수주한 국내 첫 원전 수출사업인 UAE 바라카 원전(APR1400) 사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과 안전성을 인정받으며 성공한 대형 원전 프로젝트로 주목받는 만큼, 글로벌 원전 수출의 유력 레퍼런스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제3국 진출 논의도 병행됐

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9일 술탄 알 자베르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원전·자원 분야 제3국 공동진출, SMR 협력 모델 개발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바라카 원전에서 축적된 신뢰 기반 협력 경험을 토대로, SMR 등 차세대 원전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제3국 프로젝트 발굴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UAE는 자본력과 중동·아프리카 지역 네트워크를, 한국은 기술력과 EPC 역량을 갖춘 만큼, 양국의 상호보완적 협력 모델이 실질적 프로젝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UAE 측은 원전 시장 제3국 진출에 대해 “높은 기술력과 검증된 능력을 가진 한국기업들과의 협력은 언제나 환영한다”며 특히 UAE의 자본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제3국 공동진출에 대해 큰 관심과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한-UAE 정상회담에서 합의되고 논의된 협력 사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UAE 정부와 소통할 것”이라며 “국내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들과 공동으로 관련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신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엔비디아 '역대급 실적'... 반도체 강세 속 금리 불확실성 여전

AI 붐 상승 모멘텀 재점화
필라델피아 지수도 강한 흐름
D램·낸드 가격 급등세 이어져

외국인 순매도에 환율 부담 가중
FOMC 앞두고 정책 불확실성 확대



엔비디아가 3분기 사상 최고 실적을 알린 20일 한국 증시가 문을 열자, 투자자들의 주식 사자 행렬이 밀려들었다. 코스피는 1.92% 오른 4004.85에 마감했다. 엔비디아는 19일(현지시간) 회계연도 3분기(8~10월) 매출이 570억1000만 달러(약 83조원)로 전년 동기보다 62%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시장조사업체 LSEG가 집계한 전망치(549억2000만 달러)를 20억 달러 이상 웃돈 수치다.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인공지능(AI) 선순환 구조에 진입했다"며 최근 제기된 'AI 거품론'을 정면 반박했다. 이런 소식이 반영되면서 반도체 주가도 날아 올랐다. 이날 삼성전자 주가는 4.25% 뛴 10만600원에, SK하이닉스 주가는 1.60% 오른 57만1000원에 마감했다.

◆**AI발 반도체 랠리**
19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10% 뛰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는 각각 0.38%, 0.59% 상승했다. AI 및 반도체 관련주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필리 지수)는 장중 한때 3.07% 급등했다. AI 버블이 터질 것이라는 걱정이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인식이 퍼진 영향이다. 실제 이날 엔비디아는 우려를 딛고 사상 최고 실적을 냈다.

한국 증시에도 이 온기가 고스란히 전해졌다. 이날 일본 닛케이평균, 대만 지취안 등 주요 아시아 증시도 대체로 상승했다. 지난해 12월 말 1963조원이었던 코스피 시가총액은 이날 3305조원으로 1329조원가량 늘었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282조원)와 SK하이닉스(290조원)의

증가분이 572조원에 달한다. 이유 있는 놀림이다. PC를 조립할 때 반드시 들어가는 메모리 칩 가격은 무섭게 치솟고 있다. IT 기기 가격 비교 사이트 다나와에 따르면, 소비자용 D램인 삼성전자의 DDR5-5600 16기가바이트(GB) 제품 가격은 지난 9월 6만9246원 수준에서 18일 현재 20만8090원으로 급등했다. 두 달 사이 3배로 오른 것이다. 낸드 플래시 가격도 오름세다. SK하이닉스의 1테라바이트(TB) SSD 제품 가격은 같은 기간 15만6680원에서 19만5000원으로 24% 올랐다.

실적 기대감도 커졌다. KB증권은 2026년도 코스피 영업이익을 올해(약

264조원)보다 107조원 늘어난 401조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026년 합산 영업이익은 156조원으로 예상했다.

AI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이끄는 '반도체 수퍼 사이클(초호황기)' 전망에 증권사들은 관련 기업들의 목표 주가를 빠르게 올리고 있다. 10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모건스탠리는 AI 특수와 D램 시장 수요 회복을 이유로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14만4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AI발 반도체 수요 증가로 D램과 낸드 플래시 공급 부족이 발생해, 이 분야 강자인 삼성전자가 수퍼 사이클의 수혜 대상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목표가 73만원을 제시했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단기 조정과 붕괴를 구분하는 도구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경기-이익 사이클인데, 최소한 지금까지 경기 사이클이 꺾이기 전에 버블이 먼저 붕괴한 적은 없다"며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역사적으로 증시 강세장에서 단기 조정은 평년보다 2배나 더 많이 나타나며, 일간 하락 폭도 3~4%로 평년보다 훨씬 더 급락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환율 상승이 주가 발목을 잡을 수도**
코스피 랠리가 다시 이어질까. 전문가들은 가파른 원화 약세를 걱정한다. 외

국인 투자자들이 환차손을 걱정해 받을 뻔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3원 오른 1467.9원에 주간 거래(오후 3시 30분 기준)를 마쳤다. 이달 외국인 투자자 순매도 규모가 11조2000억원에 달하며 원화 가치를 끌어내리고 있다.

환율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팬데믹 이후 대미 투자 쏠림 현상이 강화된 상황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022년부터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려 한국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지는 '금리 역전 현상'이 3년째 이어지는 것도 부담이다.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기업들의 해외 투자도 급증 추세다.

이택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과 미국의 기초체력(펀더멘털)의 격차가 원화 약세를 주도하고 있다"며 "경제성장률을 높여 환율을 안정시키는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통화정책도 변수다. 시장 참여자들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다음 달 9, 10일 열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내릴지 지켜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금리 인하 압박이 이어지고 있지만, 최근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금리 동결 전망에 점차 힘이 실리고 있다.

/허정운·신하은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AI가 밀어올렸다... 삼성·SK하이닉스, '메모리 슈퍼사이클' 시동

엔비디아 호실적에 HBM 확대세
SK하이닉스, 美매출 27% 수혜
삼성, HBM4 투자 재개 본격화

엔비디아가 올 3분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하며 그래픽처리장치(GPU) 수요가 가파르게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시켰다. 이에 'AI 버블' 우려가 누그러지면서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비롯한 각종 메모리 수요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 개선 기대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성장세가 뚜렷해지며 AI메모리칩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반영되고 있다. 엔비디아는 올 3분기 매출이 570억1000만달러(약 83조 4000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조사업체 LSEG가 집계한 전망치인 549억2000만달러를 웃도는 수치로 전년 동기 대비 62% 급증했다.

엔비디아의 호실적이 발표되면서 시장에서 제기됐던 AI 거품 논란도 한층 진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글로벌 기업들의 AI 인프라 투자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엔비디아의 데이터센터 매출은 512억달러로 전체 매출의 93%를 차지하

며 AI서버용 GPU '블랙웰' 시리즈 수요가 증가한 영향이 컸다. 이는 단순히 GPU 판매 확대를 넘어 HBM과 고성능 D램, AI 서버용 파운드리 생산량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양사는 메모리 칩의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능력(CAPA) 확대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현재 엔비디아의 최신 블랙웰 제품 원가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 수준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는 이 가운데 HBM3E 물량을 대부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SK하이닉스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올 3분기 법

인 소재지 기준 미국에서 발생한 매출은 17조 3457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27%를 차지했다. SK하이닉스가 고객사명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핵심 파트너사인 엔비디아향 매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022년부터 엔비디아에 HBM3를 공급하기 시작한 데 이어 지난해 차세대 제품은 HBM3E까지 주요 공급업체 중 가장 먼저 공급해왔다. SK그룹은 용인 반도체 일반산업단지 클러스터에 최대 600조원을 투입하며 메모리 생산능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

삼성전자 또한 엔비디아향 HBM4 초

기 샘플 공급 등 수요 확대가 기대되는 국면에 들어섰다. 회사는 HBM 생산 비중을 키우기 위해 한동안 중단했던 평택 캠퍼스 2단지 5라인 건설 공사를 재개했다. 해당 라인에는 60조원의 투자가 이뤄지며 10나노급 6세대(1c) D램과 HBM4 양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엔비디아 실적은 최근 제기됐던 AI 거품론을 상당 부분 진정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최근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방한 시기와도 맞물리면서 AI 인프라 투자가 지속될 것이라는 시장 신뢰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원가·관세·수요 압박... 강관, 북미·풍력으로 출구 찾는다

열연 인상에 원가 압박 지속 심화
반덤핑 여파에 실적 악화 추세 확대

강관업계가 열연강관 가격 인상과 중국산 반덤핑 관세, 건설 경기 침체 등 3중고가 겹치면서 원가와 수요 양쪽에서 압박을 받고 있다. 주요 강관사들은 북미 현지 생산 확대와 해상풍력·에너지용 고부가 강관으로 활로를 모색하는 모습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강관업계는 수년째 지속중인 건설경기 침체에 더해 최근에는 중국산 반덤핑 관세에 따른 강제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포스코가 11월 계약분부터 일부 강관사에 공급하는 탄소강 구조관배

관재용 실수요 열연 가격을 톤당 5만 원 인상하면서 부담은 더 커졌다. 강관 제품은 열연 비중이 제조원가의 70% 이상을 차지해 열연 가격이 10% 오르면 최종 제품 가격이 5% 이상 뛰는 구조다. 업계에서는 중국산 열연 반덤핑 관세 유지로 저가 수입재 의존도가 높았던 구조관업체의 충격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휴스틸과 넥스틸 등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제조원가가 늘자 올해 구조관 가격을 세 차례 인상하고, 배관재는 11월 출하분부터 할인율을 4~7% 축소했다. 그럼에도 휴스틸은 상반기 매출이 전년 대비 19.6% 감소하며 영업적자로 돌아섰고, 넥스틸도 3분기 매출 1219억 원(-22.3%), 영업이익 55억 원(-58.7%)에

그쳤다. 세아제강 역시 3분기 매출 3018억 원(-17.9%), 영업이익 54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 같은 환경 속에서 강관사들은 해외 현지 생산과 고부가 시장 중심으로 공급기조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세아제강지주는 에너지 전환 흐름에 맞춰 해상풍력·탄소 포집·활용·저장(CCUS)·수소 등 저탄소 인프라용 강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동시에 미국·중국 등 전통 에너지 시장 대응을 위해 SSUSA 제조법인을 중심으로 유정용(OCTG) 강관 생산·공급 체계를 강화하고, SSA·SSUSA·이녹스텍·SSUAE 등 해외 법인의 글로벌 프로젝트 대응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

일본 '무력행사' 언급에, 중국 반발

▶▶ 1면 '엔저·日中갈등...'서 계속

◆**일-중 긴장감... 지정학적 리스크 부상**
빠르게 고조하는 일-중 간의 긴장감도 국내에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 양 국가는 우리나라와 지리적·정치적으로 얽혀있어, 양국간의 긴장감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작용한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지난 7일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하는 상황을 가정한 질문에 "해상 봉쇄를 풀기 위해 미군이 개입할 경우(중국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 군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일본의 준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라며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음날인 8일 쉼엔 주오사가 중국 총

영사는 "제멋대로 들이밀고 있는 그더러운 목을 주저함 없이 베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공격적인 의견을 내놓았고, 중국 정부는 쉼엔 총영사의 발언이 개인적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으나 다카이치 총리의 앞선 발언에는 항의의 뜻을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가 11일 자신의 발언을 철회할 수 없다고 밝혔고, 중국 외교부는 18일 다카이치 발언 철회와 함께 직접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엔화 약세' 영향 당분간 지속**
전문가들은 일본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의 효과가 불분명한 만큼, 당분간 엔화 약세의 영향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안승진 기자 asj1231@



19일 인도네시아 동칼리만탄 정제공장 준공식에 허세홍 GS칼텍스 사장(왼쪽에서 6번째)과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왼쪽에서 7번째) 등 주요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인터, 인니 대형팜 기업 인수 정제공장 준공해 바이오체인 확장

인니 삼푸르나 아그로 경영권 확보 12만8000ha 대형 팜농장 추가 편입 글로벌 팜사업 외연 본격적으로 확대 동칼리만탄서 연50만톤 공장 준공 바이오 밸류체인 완성단계 진입 평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인도네시아 대형 팜기업 삼푸르나 아그로를 인수하고 현지 팜유 정제공장을 준공하면서 팜종자 개발부터 바이오연료 원료 생산까지 아우르는 풀밸류체인을 완성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 19일 인도네시아 상장사 삼푸르나 아그로의 지분을 인수해 경영권과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글로벌 팜사업 밸류체인 확장을 위한 이번 투자 규모는 공시일 기준 환율 적용 시 한화 약 1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인수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서울 면적의 2배가 넘는 12만8000헥타르의 팜 농장을 추가 확보하게 됐다. 기존 인니 파푸아 농장을 포함하면 총 15만헥

타르 규모의 글로벌 영농기반을 갖추는 셈이다.

삼푸르나 아그로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과 칼리만탄섬 전역에서 팜 농장을 운영하는 현지 대표 상장 기업으로, 자국 시장 점유율 2위의 팜 종자 전문 회사와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에 확보한 팜 농장은 이미 팜 열매가 성숙 단계에 접어들어 인수 초기부터 안정적인 이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팜 농장 사업은 나무를 심은 후 3~4년 뒤부터 수확이 가능하고, 20년 이상 생산이 이어지는 장기 고수익 구조의 사업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11년 파푸아에서 처음 팜 농장 개발을 시작해 2016년 상업생산에 들어갔으며 현재 연간 21만 톤의 팜유를 생산하는 착유 공장 3기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 팜 농장은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어 지난해까지 연평균 영업이익률 36%에 달하는 등 그룹 수익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같은 날 인도네시아 동(東)칼리만탄 발릭파판에 GS칼

텍스와 공동 설립한 팜유 정제법인 PT. ARC 준공식도 개최했다.

PT.ARC의 지분은 포스코인터내셔널 60%, GS칼텍스 40%으로 구성되며 총 투자금은 2억1000만 달러이다. 이번에 준공한 공장의 정제 능력은 연 50만 톤으로, 이는 국내 연간 팜 정제유 수입량의 약 80%에 해당한다.

정제공장은 지난해 5월 착공 이후 준공과 시운전을 거쳐 연내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자사 농장에서 생산한 팜 원유를 PT.ARC에 공급하고, 여기서 생산된 정제유는 인도네시아 내수뿐 아니라 한국·중국 등으로 판매한다. GS칼텍스는 정제시설 운영 효율을 높이고 한국 시장에 바이오디젤용 정제유를 공급할 계획이다.

포스코 그룹 관계자는 "포스코그룹은 글로벌 팜 시장에서 선도적 경쟁력을 확보해 국내 식용 유지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팜유의 안정적 생산·공급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식량 안보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신세계푸드, 사업축 재정비 버거·베이커리·B2B 체질전환

급식 매각으로 수익 중심 전환 노브랜드버거 가맹 확대 가속 식자재 B2B 판매 연계 성장

신세계푸드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간 안에 조직·사업 구조를 송두리째 뒤엎는 초고속 재편에 돌입했다. 40년 가까이 회사의 한 축이던 단체급식 사업을 과감히 매각한 데 이어 프랜차이즈 버거·베이커리·식자재 B2B 등 성장성이 높은 영역에 전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대표이사 교체까지 단행하면서 외형 중심의 확장 전략에서 소비자 접점 확대와 본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 모습이다.

신세계푸드는 최근 단체급식사업부를 이뤄홍 자회사 고메드글로벌리아에 1200억 원에 매각했다. 국내 급식 시장 톱5 규모, 지난해 매출 2754억원을 기록한 굵직한 사업부를 정리한 것은 선택과 집중을 극대화하겠다는 강력한 신호탄으로 읽힌다. 급식 매각 절차는 오는 이달 중 마무리되며 이뤄홍은 인수 작업을 위해 총 1313억원을 고메드글로벌리아에 출자했다.

신세계푸드는 급식 사업의 빈 자리를 버거·베이커리·식자재 B2B 등 '잘할 수 있는 영역'으로 매출 계획을 세웠다. 실제로

지난 1~2년간 '노브랜드피자', '베러푸드', '스무디킹', '보노보노' 등 비주력 사업도 잇따라 철수하면서 수익성 중심 경영 기조를 강화해 왔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9% 증가하며 재편 효과가 가시화했다.

재편의 중심축에는 '노브랜드버거'가 있다. 신세계푸드는 급식 부문의 공백을 메울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버거 사업을 전면에 내세웠다.

노브랜드 버거는 올해 10월 기준 230개까지 확대됐다. 직영점은 약 20개, 가맹점은 210여 개다. 회사는 가맹점 교육을 위한 'NBB 아카데미'를 확장 운영하고, 콤팩트 매장 도입으로 창업비용을 최대 60%까지 낮추는 등 가맹 확대 중심 확장 전략을 본격화했다.

신세계푸드는 패티·식자재 등 B2B 납품 사업과 연계해 수익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노브랜드버거는 패티·채소 등 대부분의 식자재를 신세계푸드가 공급하는 구조다. 가맹점이 늘수록 식자재 매출이 동반 확대되는 셈이다. 신세계푸드가 노브랜드버거를 그룹 핵심 사업으로 삼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AI 우려 과장... 메모리 선순환 본격화

>> 1면 '코스피 4000선 탈환...'서 계속

울프 리서치의 크리스 세니엑 수석 투자 전략가는 "적어도 지금 단계에서는 AI 버블이 터질 것이라는 걱정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면서 "우리는 AI 주식이 조정받을 때마다 계속 매입하는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윤

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AI의 선순환 구조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새로운 AI 모델, AI 스타트업, 다양한 산업, 다양한 국가의 AI 수요가 메모리에 대한 수요로 이어지고 디램 가격 강세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지역혁신성장, 규제자유특구는 산업, 인재, 기술의 융합을 지향하며 혁신을 선도합니다.

경남의 확실한 변화, 경남규제자유특구가 열어갑니다!



규제자유특구 신규참여, 투자 유치 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바랍니다.

규제자유특구 참여문의 ☎ 055-211-3024 (경남도청 산업정책과) ☎ 055-259-3325 (규제혁신추진단)



AI 시대를 여는 KEY

대한민국 산업화의 문을
에너지로 열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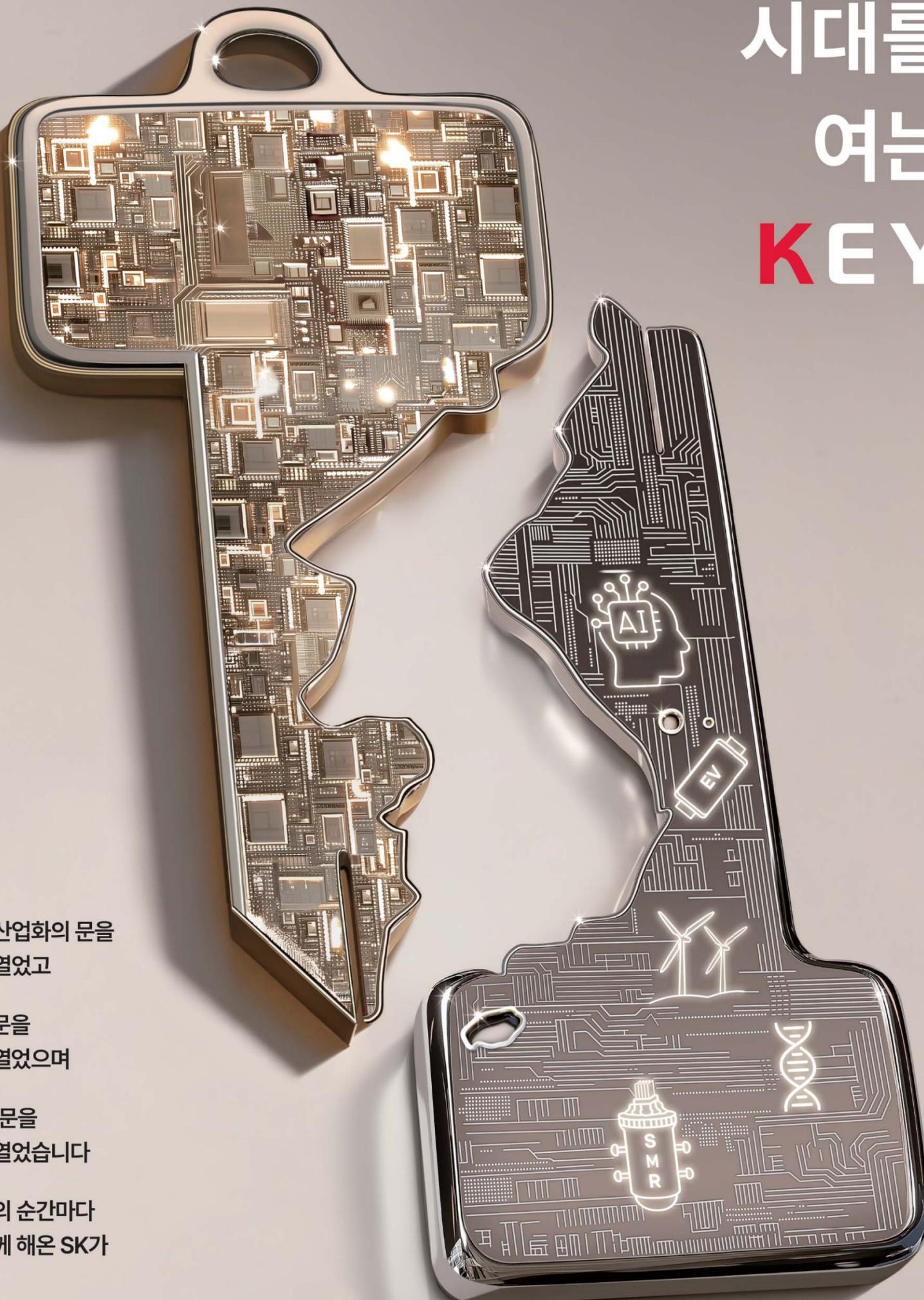
정보화의 문을
통신으로 열었으며

AI 전환의 문을
반도체로 열었습니다

국가 성장의 순간마다
묵묵히 함께 해온 SK가

또 한 번 대한민국의
Key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SK



與, '부동산 135만호 공급' 논의 위해 野와 지속 협의키로

당정, 부동산 9·7 대책 위해
23개 법률 제·개정 필요 공감대
연말까지 野와 일주일마다 논의

PM법 공동발의... 안전체계 구축
소규모 위반 건축물 양성화 논의도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도로 135만호를 공급하는 부동산 9·7 대책 후속 입법을 논의하고 최근 시민 안전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PM(개인형 이동장치)법 제정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당정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후 첫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당정협의엔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복기왕 국토위 여당 간사와 윤준근·천준호·이건태·이연희·전용기·한준호·손명수·안태준·임태영·박용갑 등 국토위원이 참석했다. 국토교통부에선 김윤덕 장관과 국토부 기획조정실장, 국토도시실장, 주택정책관, 건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3대 핵심입법 추진을 위한 국토교통부 당정협의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축정책관, 모빌리티자동차 국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9·7 대책의 사업 속도를 높이고 공급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23개의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보였다. 당정협의에 따르면, 현재도 시정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부동산 거래신고법 등 5개 법안이 국토위 소위에 회부돼 있다.

주요 법안으로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분쟁조정 근거를 마련하는 도시

정비법 개정안, 노후계획도시 신속 정비 지원하기 위해 계획을 통합수립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6년 말로 예정된 일몰제를 폐지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이 논의됐다.

복기왕 국토위 여당 간사는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법안을 논의하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장을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어 야당의 협조를 위해 당정이 노력하기로 했다"며 "향

후 연말까지는 거의 1주일에 한 번씩 현안을 갖고 당정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도입 이후 현장에서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해 PM법제와 규제 당국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PM법을 제정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복기왕 간사와 권영진 국토위 야당 간사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와 불법 주차·무단 방치 방지를 위한 PM법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는데, 해당 법안은 ▲국가·지자체 안전관리 책무 강화 ▲무면허 운행 금지 ▲안전모 착용·보험 가입 의무화 ▲대여사업자 등 통제 강화 및 불공정 행위 금지 ▲주차·충전·수리 등 안전 인프라 확충 ▲대중교통 연계 거처대 설치 등이 담겼다.

맹성규 위원장은 "실제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건 사고는 2017년 대비 2024년에 교통사고는 20배, 사망자는 6배 급증했다"며 "특히 20세 이하 청소년 사고 비중이 약 47.2%로 미래 세대가 교통 안전에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관리에 있어, 이용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안전 관리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민 불안이 더욱 더 커져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 기회에 법적 기준을 마련해서 안전 관리 체계를 확실히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지난 10월 정부가 발표한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맹 위원장은 "안전 문제가 없고 인근 주민 피해가 없는 주거용 일반 건축물의 합리적 관리 방안이 논의된다"며 "건축주의 불법 행위 책임이 매수인에게 전가되거나 임차인의 주거 불안정 문제가 유발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위반 건축물 문제는 현재 우리 당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이제 정부도 적극 협조하겠다.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선 어려운 민생 경제를 고려해 한시적 합법 전환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나경원·송언석 의원직 유지

사건 발생 6년 7개월 만에 선고
패스트트랙 과정 중 접수 방해 혐의
나경원·송언석·황교안 벌금형 받아

6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의안 접수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전·현직 의원 및 관계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건 발생 6년 7개월 만에 나온 선고다. 다만 국회법 위반 혐의는 벌금 500만원 이하라 모두 현직 국회의원의 경우 직은 유지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관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황교안 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 기일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시스

국무총리 등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나 의원에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을, 국

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과 150만원을,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는 각각 1500만원,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외 현직 국회의원인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의원은 각각 벌금 850만원, 1150만원, 550만원이 선고됐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홍 충남지사는 각각 벌금 750만원, 150만원을, 원외인사인 민경욱·이은재 전 의원에게는 각각 1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로 나 의원과 송 원내대표 등 현직 의원 4명은 모두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국회법 166조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된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나 의원과 송 원내대표 등 현직 국민의힘 의원 중 이철규 의원을 제외한 5명에게 의원직 상실형 이상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국회의원 면책특권, 저항권 행사 등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할 국회의원 신분인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저지하거나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것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은 쟁점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여진다"며 "당시

피고인들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고 대체로 상대방의 출입을 막아서는 등 간접적인 형태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 4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해 여야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나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의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혁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혁위) 회의장을 점거해 법안 접수 업무와 국회 경위의 질서 유지 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서예진 기자 syj@

장동혁, 4선 이어 3선 중진 만나... 대야투쟁 결집 당부

3선 의원들과 오찬... 스킨십 강화
존재감 부족·당내 잡음 지적에도
대장동 항소포기 사건 총공세 지속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사진)가 20일 3선 중진 의원을 만나 이재명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전날(19일) 4선 의원들을 만난 데 이어 연일 의원들과 스킨십을 강화했다.

당 대표와 3선 의원 오찬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정재·김석기·김희정·송석준·이만희·이철규·임이자·정점식·추경호 의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장 대표는 전날 4선 의원들과 가진 오찬에서 여당의 공세가 12·3 비상계엄 1주년 맞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당 의원들의 결집을 요청했고, 3선 의원들과 오찬에서도 집권여당의 공세에 맞서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 면회, 국회 대규모 집회에서 "우리가 황교안이다" 발언으로 당 내 극우 세력까지 끌어안는 모습을 지속 연출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이 중도 소구력이 떨어진다

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선수별 의원들을 만나 당 내 결집을 유도하는 모습이다.

장 대표는 이번주를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 및 정권 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야 투쟁을 강화하는 한 주로 삼고 용산 대통령실, 법무부, 대장동 일당 중한 명인 남욱 변호사의 청담동 빌딩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어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예산 포퓰리즘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내년도 예산 728조원은 부동산 정책 실패, 대미 관세 협상 지연 등의 복합 위기에 신음하는 민생과 기업을 살려내고, 꺼

저가는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재점화할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참담하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고민은, 전혀 없다. 오로지 지지층 결집을 위한 매표용 현금 살포와 제 식구 챙기기식의 방안 지출로만 점철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 같은 이재명 정부의 무책임한 재정 중독 그리고 포퓰리즘 폭주를 막아내겠다. 지역사랑상품권 살포와 노조 퍼주기 등 선심성 거품을 걷어내고, 그 재원이 민생과 청년의 미래를 위해 쓰이도록 바로잡겠다"며 원내에서도 투쟁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최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과의 새벽배

송 논쟁,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판정 취소 사건에서 정부가 승소하면서 한 전 대표의 공로가 조명되면서 장 대표의 존재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 유튜브 방송에서 같은 당 친한(친한동훈계) 김예지 의원을 겨냥한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하는 등 잡음이 이어지면서 당이 어수선한 모습이다.

그럼에도 장 대표는 대장동 항소포기 사건을 고리 삼아 총공세를 벌이겠다는 심산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번 주 주말에 당 지도부는 부산 중구 광복로에서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을 부각하는 대국민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박태홍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100호 어린이집 완공

하나금융그룹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아이들의 웃음과 희망을 지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진심은

하나금융그룹이 6년간 쉬 없이
달려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00개의 어린이집을
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소외 없는 틈새 돌봄으로
보육 사각지대를 채우는 데 집중하며

하나금융그룹은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행복한 세상에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100호 봉화군 석포하나어린이집

꿈을 담은 100호 어린이집의 완공으로
7,519명 어린이 돌봄 가능

누구 하나 소외 없이, 평등한 보육을 약속하는 어린이집
장애아 대상 18개소 / 농어촌 지역 30개소 건립

100호 어린이집으로 이루는 상생
1,510명 일자리 창출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핑크 |

AI 확산 속 고령화 심화... 보험설계사, 지속 가능성 시험대

설계사 평균연령 상승세 지속
중장년·N잡러 중심 구조 고착
복잡해지는 상품환경 대응 부담
AI 활용 전문직 전환 요구 커져

보험설계사 직업이 고령화와 젊은층 기피, 인공지능(AI) 확산 등과 맞물려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다. 새로운 인력 구조와 기술 환경에 맞춰 설계사 역할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20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여성 생명 보험 설계사 평균 연령은 2001년 41세에서 2022년 51.4세로 약 10세 뛰었다. 같은 기간 전체 취업자 평균 연령이 36.5세에서 43.8세로 7.3세 오르는 데 그친 것과 비교하면, 설계사 집단의 고령화는 노동시장 전체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된 셈이다.

신규 진입자 구성에서도 세대교체가 사실상 멈춘 모습이다. 보험설계사 시험



보험설계사의 평균 연령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Chat GPT가 생성한 보험설계사 이미지.

응시자 가운데 29세 이하는 2010년 17.4%에서 2024년 12.2%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40~59세는 44.9%→55.8%, 60세 이상은 1.3%→9.7%로 크게 뛰었다. 과거에는 20대가 인구 비중보다 더 많이 설계사 시험에 몰렸지만 이제는 인구 비중을 겨우 따라가는 수준에 그친다.

청년층은 소득의 변동성이 크고 사회적 인식이 낮다는 이유로 설계사 직업을 선택하지 않는다. 반면 직장 경력을 쌓은 중·장년층과 퇴직 이후 재취업을 찾는 고령층, 다른 일을 하면서 부업 형태로 보험을 파는 N잡러가 주요 신규 유입층이 되고 있다.

고용 형태의 특수성은 직업의 불안정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보험설계사는 근로계약을 맺는 직원이 아니라 위촉계약을 기반으로 한 특수고용직·개인사업자 지위를 갖는다. 전속 설계사의 경우 회사 조직과 관리자 체계 안에서 활동하지만, 법적으로는 독립 사업자로 취급되는 이중적 위치다.

고령화와 특수고용 구조는 직업의 질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과제를 남긴다. 고령 설계사의 경우 신규 고객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활동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의료기술·제도·상품 구조가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서 복잡한 상품을 따라잡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아울러 최근 확산되는 AI 채널은 위기이자 기회다. 일부 보험사는 이미 챗봇과 자동화 상담 시스템을 통해 기본문의 응대와 계약 설명을 처리하고, 고객 데이터 분석·상품 추천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보험설계사가 과거 '보험 아줌마'로 불리던 시기를 지나 대졸 전문직으로 자리 잡았고 앞으로는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AI 보조형 전문직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중·장년층에게는 경력을 살리면서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평생직업이자, 다른 직업을 가진 N잡러에게는 제도권 안에서 자신의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부업이 될 수 있다는 것.

김석영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보험설계사는 소비자가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을 인지하고 이에 적절히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필수적인 전문 직업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어 장래에도 계속 존재할 것"이라며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전문직으로 거듭나고 수수료가 분급돼 소득도 안정화되면서 보험설계사 직업의 지속가능성은 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상호금융 부실화 예방... 대손충당금 적립률 130%로 ↑

적자조합 속출... 건전성 규제 강화
적립 확대 요구에 상호금융 부담감
유예 요청에도 수용 가능성 불투명

금융당국이 상호금융 부실화 우려에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높인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연말부터 상호금융권 건설업·부동산업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130%로 상향된다. 이번 규제는 지난 2023년 발표된 것으로,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부실화를 막기 위한 조치다. 단계적 적용 및 한시 유예 조치에 따라 지난 6월 말부터 120%, 오는 연말부터는 130%로 적용된다.

실제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상호금융권의 지난 6월 말 기준 대출 연체율은 5.70%로, 지난해 대비 1.16%포인트(p) 상승했다. 상반기 기준 신탁은 상반기 연체율 8.36%, 신탁은 7.82%, 농협은 4.70% 수준이다.



상호금융의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대손충당금 비율이 높아진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설치돼 있다. /뉴시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의 전체 연체율을 4%대로 낮출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을 중심으로 한 상호금융권의 적자 조항이 속출하면서 건전성 제

고에 나선 것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당국의 규제가 부실을 줄이는 것이 아닌, 오히려 비용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 14일 농협·수협·신탁·새마을금고·산림조합 등 5대 상호금융기관 대표들은 대손충당금 규제 유예를 요청하는 공동 건의문을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건의문의 핵심은 대손충당금 상향 주기를 반년이 아닌 1년 단위로 전환하고, 상향 폭도 매년 10%포인트(p)씩 적용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로 예정된 130% 상향 시점도 내년으로 미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말 추가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이 조합 전체의 적자 확대에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는 다시 농업·농촌 지역 환원 축소로 이어지면서 상호금융의 본래 역할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상호금융권의 건의는 두

번째 이뤄지는 것이다. 상호금융권은 이미 2023년 금융당국이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 상향을 발표했을 때 적립률 적용 시점을 늦춰달라고 한 차례 요청한 바 있다.

당시 당국은 이를 수용해 기존 110% 상향 시점을 6개월 늦추기로 했고, 현재 유예 기간이 끝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130% 적용 시점이 다가온 것이다.

일각에서는 상호금융권의 이번 유예 요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호금융의 지방 프로젝트 파이낸싱(PF)를 중심으로 한 부실대출의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돼 온 만큼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다시 조정하기는 힘든 상황일 것"이라며 "유예 요청도 이미 한 차례 수용됐기 때문에 이번 요청이 다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지식산업센터 경매 쏟아진다

은행의 잔금대출 중단 여파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지식산업센터가 급증하고 있다.

20일 부동산 경매정보 제공회사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9월 말까지 법원경매에 나온 지식산업센터는 2593건으로 이미 지난해(1564건) 수준을 훌쩍 넘어섰다.

지난 200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대다. 2019년부터 5년간 연평균 573건이던 지식산업센터 경매건수가 최근 2년간 3~4배 많아진 셈이다.

업계는 지난해 중반부터 입주예정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은행의 잔금대출 비율이 축소되거나 전면 중단된 경매급증의 배경으로 꼽고 있다.

법원경매 건수 올해만 2593건
잔금대출 막히며 이자 못갚아
2년간 3~4배 늘어 '사상 최대'

SC제일은행, 고액자산가 특화센터 개점

압구정 프라이빗 बैं킹 센터 개점
1호 고객으로 박세리 감독 초청

SC제일은행은 20일 스탠다드차타드(SC)그룹의 검증된 글로벌 프라이빗 बैं킹 모델을 적용한 '압구정 프라이빗 बैं킹(Private Banking) 센터'를 개설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문을 연 '압구정 프라이빗 बैं킹'은 예치 자산 10억원 이상의 고액 자산가 고객을 위한 대규모 프라이빗 बैं킹 센터다. SC그룹의 주요 시장인 싱가포르, 홍콩, 대만, 아랍에미리트(UAE), 인도, 중국에서 성공한 글로벌 자산관리 센터 모델을 한국에 처음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압구정 프라이빗 बैं킹 센터는 총 6개 층으로 구성됐다. 고급라운지와 리셉션

데스크, 대여금고와 함께 11개의 고객 상담 전용 공간을 보유하고 있으며, 센터장을 포함해 22명의 전담 직원(RM)과 4명의 투자, 외환, 보험 전문가 그룹이 상주한다. 자산관리 전문 RM들은 최소 10년 이상의 자산관리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국제 경영대학원인 INSEAD와 SC그룹의 연계 프로그램 'SC-INSEAD 웰렛 아카데미(Wealth Academy)'를 수료한 금융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날 압구정 프라이빗 बैं킹 센터에서 열린 오프닝 행사에는 압구정 프라이빗 बैं킹 센터 1호 고객으로 박세리 감독이 초청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광희 SC제일은행장을 비롯한 SC제일은행 경영진과 사외이사, 주디 슈(Judy Hsu) SC그룹 소매금융 및 범중화권북아시아(GC



SC제일은행 압구정 프라이빗 बैं킹 센터 오프닝 행사에서 주디 슈(Judy Hsu) SC그룹 소매금융 및 범중화권북아시아(GCNA) CEO(왼쪽 첫번째)가 이광희 SC제일은행장(오른쪽 첫번째), 1호 고객인 박세리 감독과 함께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SC제일은행

NA) CEO가 참석해 주요 초청 고객들과 함께 리본 커팅 및 센터 투어를 진행했다

SC제일은행은 이번 압구정 센터를 시작으로 향후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 등과 같이 자산가 고객이 집중된 도시에도 순차적으로 프라이빗 बैं킹 센

터 개설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광희 SC제일은행장은 "소매금융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국내 유일의 글로벌 은행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글로벌 투자 전략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에 한 차원 높은 금융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특히 분양 물량 정점이던 2021~2022년에 공급된 지식산업센터의 입주가 본격화된 지난해부터 대출이 막히면서 법원경매로 넘어가는 건수도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식산업센터는 통상 계약금 10%, 중도금 50%, 잔금 40% 비율로 납부하는 구조다. 중도금은 집단지대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입주가 시작되면 잔금은 계약자 담보대출로 전환된다.

그런데 금융권이 분양가의 70~80% 수준에서 해오던 잔금대출을 급격히 줄이면서 계약자들 가운데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금융권은 통상 대출이자를 3회 연체하면 채권회수 목적으로 경매절차에 나서게 된다.

한편,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올 4월 말 기준 전국 1547곳 지식산업센터 가운데 수도권에 77%(1191개)가 몰려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

항공업, 여객 회복에도 실적 부진 환율 부담·원가 급등에 수익 악화

3분기 LCC 합산 적자 1700억대
환율 1460원대 비용 압박 심화
운임 회복 지연에 비용 부담 커져
기단 효율 저하로 실적 반등 지연

국내 항공업계가 여객 수요 회복에도 실적 개선에 실패하면서 또 한 번의 구조적 난관에 직면했다. 코로나19사태 초기의 '수요 붕괴'와 달리 운임 수익 하락과 정비 지연, 기단 효율 저하가 수익성을 압박하는 새로운 형태의 위기가 부각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항공사들의 3분기 실적은 일제히 악화되면서 제주항공은 매출 3883억원에도 영업손실 550억원을 기록해 적자로 돌아섰다. 티웨이항공은 매출이 13.9% 늘었지만 영업손실이 955억 원에 달했고, 진에어도 225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대형항공사(FSC)인 대한항공은 올해 3분기 매출 4조85억 원, 영업이익 3763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 39% 감소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영업손실 1757억 원을 기록하면서 다시 적자에 빠졌다.

항공사들의 적자행진은 코로나 시기와 성격이 다르다. 당시에는 국제선 수요가 90% 이상 사라져 적자가 불가피한 환경이었지만 지금은 여객이 돌아온 상황에서 운임 정상화가 수익 회복을 막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항공 좌석 수는 2841만석으로 집계됐지만 탑승객 수는 2463만명으로 나타났다. 좌석당 여객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말이다.

공급 확대로 국제선 운임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내려왔고, 항공사들은 모객 경쟁을 위해 가격 프로모션을 늘리면서 좌석당 수익은 정체되고 있다.정



여름 휴가철 맞은 28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여행객들이 출국준비를 하고 있다. /뉴시스

비·운항 비용은 코로나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움직여 매출 증가가 곧바로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

또 항공사는 항공기 리스료를 비롯해 유류비, 정비·부품 조달 비용 대부분을 달러로 결제하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비용 증가로 직결된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1460원대로 올해 들어 지난 14일까지 주간 거래 증가 기준 연평균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415.28원이다. 2021년 코로나 시기 연평균 환율이 1144.61원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항공사들의 비용부담이 가중된 것이다.

코로나 시기 항공사들은 비용 축소와 기단 재편, 그리고 화물 중심 전략을 폈다. 운항을 줄이며 정비·연료비를 절감했고, 인력 구조조정 대신 휴직·무급휴가 등으로 고정비를 최소화했다. 그 결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화물 물류 호황을 기회로 삼아 2022년 최대 실적을 거뒀고, LCC들은 비수익 노선 정리와 리스 조건 조정으로 현금 유출을 줄였다.

그러나 이 성공 모델은 현재 시장에

서는 더 이상 작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화물 수요는 정상화됐고, 항공기 리스료·정비비·부품비 등 기본 비용은 팬데믹 이전보다 높은 수준에서 고착됐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지금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장기 정비 계획 재편과 노후 기재 퇴출, 기종별 역할 분리 등 기단 효율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수익성이 높은 노선 중심의 재배치, 프리미엄 좌석 확대, 계절·수요 기반의 차등 운임 도입 등 운임 전략의 정교화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팬데믹 당시의 위기와 지금의 위기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며 "단순히 운항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이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노선·기단·정비를 모두 포함한 구조적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엔진 결함과 부품 조달 지연 같은 문제는 개별 항공사가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제조사·정부·항공사 간 공동 대응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승용 기자 ks2665@metroseoul.co.kr

LG, 아마존과 와이파이 특허 라이선스 체결

표준기술 기반 글로벌 협상력 강화

LG전자가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과 와이파이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며 통신 표준 특허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LG전자는 최근 미국 아마존과 와이파이 표준필수특허(SEPs) 사용권에 대한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고 20일 밝혔다. 아마존은 인공지능(AI) 스피커 알렉사, 스트리밍 기기 아마존 파이어 TV 스틱, 파이어 테블릿 등 와이파이 기술을 활용하는 기기에 LG전자의 와이파이 표준필수특허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LG전자는 이번 계약을 통해 와이파이 표준 분야에서 기술 리더십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LG전자는 아마존 외에도 와이파이 표준 기술을 사용하는 다수 글로벌 기업들과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협상을 진행 중이다.

표준필수특허는 국제 표준을 충족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핵심 특허로, 관련 기술이 산업 전반의 공통 기술이 되는 만큼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크다. 특정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

되면 해당 표준을 따르는 모든 기업이 관련 특허를 기반으로 제품을 개발하게 되기 때문이다.

LG전자는 통신, 와이파이, 방송, 코덱 등 주요 표준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톱 수준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 LG전자가 공시한 2025년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LG전자가 보유한 국내의 등록 특허는 9만7880건이며 이 가운데 약 절반이 표준특허에 해당한다.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TV, 세탁기, 냉장고 등 주력 제품에 적용된 혁신 특허 기술 역시 글로벌 시장에서 LG전자 사업 경쟁력의 기반이 되고 있다.

LG전자는 6G 이동통신, 차량-사물통신(V2X),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미래 유망 기술 분야에서도 특허 경쟁력을 지속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부품 사업에서는 차량용 AR(증강현실) 내비게이션 관련 선행 특허 기술을 인정받아 특허청이 주관한 '2024 특허기술상'에서 대상인 세종대왕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정희준 기자 nauta@

삼성전자, AI기반 보안·로봇 기술 공개

'테크 콘퍼런스' 온라인 개최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전환(AI, AI Transformation)'을 주제로 주요 연구 성과를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삼성 테크 콘퍼런스 2025(STC2025)'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삼성전자는 '인공지능 전환'을 주제로 ▲AI 에이전트 ▲로봇 AI ▲차세대 보안 ▲통신 등 혁신적인 선행 기술부터 상용화 기술까지 다양한 성과와 비전을 공유했다.

삼성전자 DX부문 최고기술책임자(CTO) 겸 삼성리서치장 전경훈 사장은 "AI는 이미 단순한 도구가 아닌 일상과 업무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며 "디지털 전환을 넘어 인공지능 전환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조연설에서 삼성전자는 ▲AI 기반 차세대 보안 혁신 ▲지능형 소프트웨어(S/W) 플랫폼의 진화 ▲AI를 활용한 로봇 기술의 도약 ▲오픈소스 AI의 생태계 확장 등 인공지능 전환 시대의 4가지 핵심 기술을 소개했다. 또 리눅스 재단의 짐 젤린 의장이 최신 오픈소스 AI 기술 동향을 공유했다.

기조연설 이후 진행된 기술 세션에서는 삼성전자 연구원 60여 명이 통신, 헬스케어, 보안, 스마트싱스(SmartThings) 등 다양한 분야에 AI를 적용한 최신 연구 성과와 40여 건을 발표했다.

▲보이스피싱과 악성 앱 AI 자동 탐지 ▲AI 기반 고전 영상 고화질 복원 ▲30분 만에 갤럭시 XR 콘텐츠 제작하기 ▲온디바이스(On-Device) 오디오 지우개(Audio Eraser) ▲무선 통신 기지국 AI 품질 최적화 등 다양한 사례가 소개됐다.

/차현정 기자 hyeon@

기아 PV5, 34년 만에 아시아 첫 '올해의 밴'

세계 상용차 박람회 '솔루트랜스' 평가단 만장일치로 최종 선정 수상
포드·폭스바겐 제치고 수상 영예

기아의 최초 목적 기반 차량(PBV) 첫 모델인 PV5가 글로벌 전기 밴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했다.

기아는 19일(현지시간)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세계 상용차 박람회인 '솔루트랜스'에서 PV5가 '2026 세계 올해의 밴'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세계 올해의 밴은 유럽 각국의 글로벌 경용차 전문 기자단으로 구성된 비영리 기관 IVOTY가 주관해 선정하며 1992년부터 34년째 이어져오고 있다. 해당 연도에 출시된 경용차량을 대상으로 가장 혁신적인 가치를 지닌 차를 선정해 시상한다.

2026 세계 올해의 밴은 올해 12개국 이상에서 판매를 개시한 경용차량 중 최종 후보에 오른 7개 차량을 평가단이 직접 시승을 통해 ▲기술 혁신성 ▲효율



기아 더 기아 PV5.

성 ▲안전성 ▲환경성 ▲지속가능성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다.

PV5는 포드 E-트랜짓 큐리어, 포드 E-트랜짓, 포드 트랜짓 커넥트 PHEV, 폭스바겐 크래프트, 폭스바겐 트랜스포터/E-트랜스포터, 피라이즌 SV 등 최종 후보에 오른 글로벌 경용차 시장의

강력한 경쟁 모델들을 제치고 2026 세계 올해의 밴으로 선정됐다.

특히 이번 수상은 세계 올해의 밴 34년 역사상 한국 브랜드 최초이자 아시아 전기 경용차로도 처음이다. 심사 위원단 26명 전원 일치로 수상이 결정됐다.

송호성 기아 사장은 "기아는 오랫동안 EV 혁신을 이끌고자 노력해왔으며, PV5는 이러한 의지를 상용차 영역까지 확장한 모델"이라며 "특히 PV5는 다품종 유연 생산이 가능한 '컨베이어-셀' 결합 생산 시스템과 같은 제조 혁신까지 함께 이뤄낸 결과물이기에 이번 수상이 더욱 의미 깊다"고 밝혔다.

이어 "PV5가 데뷔와 동시에 '세계 올해의 밴'에 선정된 것은 기아가 글로벌 경용차 시장의 기준을 재정의하고, 전 세계 비즈니스 고객을 위한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한 모빌리티의 미래를 열어갈 것임을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SK지오센트릭, 에탄으로 NCC 경쟁력 강화

SK가스와 손잡고 원료 다변화 추진

SK지오센트릭은 지난 19일 SK가스와 에탄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안정적인 에탄 공급망과 원료 경제성 확보를 통해 석유화학산업 구조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양사는 향후 에탄 공급 시기와 물량 등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SK지오센트릭은 자율·선제적 사업 재편의 일환으로 에탄 도입을 통한 원료 구조 다변화와 공정 효율화 방안을 검토해 NCC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SK가스는 북미 지역에서 구매·운송·가격 협상 등 공급망 전반을 총괄하며 안정적인 원료 확보 인프라를 마련할

예정이다.

두 회사는 에탄의 수입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공급망 체계를 구축해 가격 경쟁력과 공급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에탄은 기존 납사 대비 가격 변동성이 낮고 에틸렌 생산 효율이 높은 원료로, 북미 셰일 가스 생산 확대를 기반으로 중국·인도·유럽 등 주요 석유화학 기업들이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

SK가스는 기존 LPG·LNG 인프라를 기반으로 에탄 저장·하역이 가능한 터미널을 개발 중이며, 이를 통해 SK지오센트릭을 포함한 울산 석유화학단지 주요 기업들에 안정적으로 원료를 공급할 계획이다.

/원관희 기자 wkh@

중견기업 2題

크기 줄여 공간활용 극대화
정수기·비데 등 시장 공략

코웨이 '슬림테리어' 생활가전

아이콘 얼음정수기 미니, 20cm 초소형
비데스 안마의자 시그니처, 크기 43% ↓

코웨이가 '슬림테리어(슬림+인테리어)' 트렌드에 맞춘 생활가전으로 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집의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면서 인테리어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코웨이에 따르면 회사는 욕실부터 거실, 주방에 이르기까지 공간의 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슬림 가전을 선보이고 있다.

코웨이가 출시한 '아이콘 얼음정수기 미니'는 가로 20cm의 초소형 사이즈로, 기존 '아이콘 얼음정수기 오리지널' 대비 약 28% 줄었다.

크기는 작아졌지만 제빙과 위생 기능은 오히려 강화했다. 코웨이의 특허 기술인 '듀얼 연속 제빙 시스템'을 최적화해 9분30초마다 신선한 얼음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생성한다. 위생 기능 역시 정교해져 얼음이 생성되고 추출되는 전 구간에 7개의 UV LED를 탑재해 빈틈없이 살균하며, 고온수 살균 기능으로 얼음 트레이를 이중 관리한다. 또한 버튼 한 번으로 정량의 얼음과 물을 동시에 추출하는 '스마트 원터치' 기능으로 편의성을 더했다.

'물루 슬리믹 비데'는 압도적으로 얇은 83mm의 두께가 특징이다. 핵심 부품을 소형화하고 감각적인 플랫 디자인을 적용해 기존 '물루 더블케어 비데' 대비 높이를 48%나 줄였다. 이에 따라 비데와 도기가 자연스럽게 맞물려 안정적이고 편안한 착좌감을 제공한다.

다양한 편의기능도 탑재했다. 자동 살균 시스템이 전기분해 살균수를 통해 유로·노즐·도기가



코웨이 비데스 안마의자 마인 플러스.

지 3단계에 걸쳐 99.9% 살균하며, 블루투스로 연동된 사용자의 휴대전화를 인식해 사용자별 미리 설정해 둔 맞춤 비데 기능을 자동 제공한다. 본체 IPX5, 리모컨 IPX7의 강력한 방수등급으로 물청소도 쉽다.

부피가 큰 힐링 가전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코웨이는 소형 안마의자 '비데스 마인 플러스'를 출시하며 소형 안마의자 라인업도 강화했다.

이 제품은 기존 '비데스 안마의자 시그니처' 모델 대비 사이즈를 약 43% 줄이고 폭넓은 안마 기능을 탑재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소형 안마의자에서 보기 드물었던 하체 특화 안마 시스템 '레그 컨버터블'을 탑재해 안마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이를 통해 허벅지부터 종아리까지 원하는 다리 부위를 강력하게 마사지할 수 있으며 발바닥 롤러와 발등 에어 마사지 기능까지 더해 하체 전 부위를 집중적으로 케어한다.

코웨이 관계자는 "주방 가전을 넘어 비데, 안마의자 등 가전 전반으로 슬림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추세"라며 "단순히 부피를 줄이는 것을 넘어, 각 공간의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루면서도 플래그십 모델의 핵심 기능을 모두 담아내는 고도의 기술력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본원 경쟁력 높여 실적방어
10개 분기 연속 '흑자행진'

한샘, B2C 투자전략

3분기 매출 4414억, 영업이익 68억 기록
제품·유통·마케팅 전반 구조개편 성과

한샘이 B2C 투자 전략 효과를 통해 업황 부진을 타개해나가고 있다. 전방산업인 부동산시장 침체로 업계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1위 기업의 행보에 귀추가 쏠린다.

20일 한샘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샘은 올해 3분기에만 4414억원의 매출과 68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이는 2023년 2분기 이후 10분기 연속 흑자 행진이다.

이는 프리미엄과 중·고가 시장을 아우르는 제품 경쟁력 강화, 고객 경험 중심의 유통 채널 개편, 마케팅 고도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본원적 경쟁력을 높여 실적 방어를 넘어 구조적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한샘은 최근 몇 년간 B2C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품·유통·마케팅 전반에서 구조 개편에 나섰다.

부엌 부문이 대표적인 변화 사례다. 한샘의 주력 라인업인 '유로키친'은 디자인과 수납 효율을 개선한 신제품 출시 이후 중·고가 시장에서 점유율이 상승하며 전년 대비 13%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 브랜드 리뉴얼을 단행한 프리미엄 라인 '키친바흐' 역시 전년 대비 44% 성장했다. 감도 높은 디자인과 고급 소재, 시공 신뢰성을 강조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프리미엄 소비자층의 수요 회복으로 이어졌다.

유통 채널 개편도 주효했다. 한샘은 지난 6월 서울 논현동 가구거리에 '플래그십 논현'을 리뉴얼 오픈하며 오프라인 유통의 방향성을 재정의했다. 단순 전시가 아닌 체험·상담·설계가 결합된 프리미엄 매장으로 재편한 결과 플래그십 논



한샘 도무스.

현 매출은 전년 대비 77%, 상담 건수는 50% 증가했다. 수입가구 유통 브랜드 '도무스(DOMUS)'의 매출도 같은 기간 80% 이상 늘며 고급 리빙 시장 내 존재감을 높였다.

최근에는 플래그십 스토어를 영남권으로 확장했다. 지난 10월 리뉴얼 오픈한 '플래그십 부산센텀'은 개장 직후 매출과 방문객 수가 두 배 가까이 증가하며 지역 프리미엄 시장의 대표 공간으로 부상하고 있다.

고도화된 마케팅 활동을 통해선 매출 확대와 수익성 개선을 동시에 달성했다. 지난 9월 진행한 썬페스타에서는 고객의 구매 성향과 관심사, 시즌 특성을 분석해 세분화된 타겟에게 인테리어·홈피싱·리빙 분야의 핵심 상품을 전략적으로 노출했다.

향후 한샘은 ▲학생방·바스·키즈 등 핵심 카테고리 경쟁력 강화 ▲온·오프라인을 잇는 유통 경쟁력 확장 ▲B2B 구조 개편을 통한 중장기 수익 기반 확대를 통해 본원적 경쟁력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샘 관계자는 "B2C 강화는 단기 실적보다 브랜드의 장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며 "앞으로도 제품, 매장, 서비스 전반에서 고객 경험을 중심으로 한 혁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스타트업 축제 '컴업 2025' 내달 10일 개막 삼성중, 컨테이너선 7척 1.9조에 수주

중기부, 컴업 미디어데이 열어
세계 45개국, 150여개 기업 참여

한국이 만든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 '컴업 2025'가 내달 10~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

지난해 컴업 행사에는 역대 가장 많은 45개국, 150여개 스타트업이 참여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 강남구 글로벌스타트업센터(GSC)에서 '컴업 2025 미디어데이'를 열었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컴업 슬로건은 '리코드 더 퓨처(Recode the Future)'로, 스타트업이 혁신적인 기술과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산업·국가 간 경계를 넘어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간다는 의미를 담았다. 테크, 글로벌, 기업이 정신을 세부 주제로 컨퍼런스, 전시, IR, 오픈이노베이션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사우디 국영 AI 기업 휴메인의 타렉 아민 CEO, 박성현 리벨리온 대표 등이 연사로 참여한다.

특히 올해는 국내 스타트업과 글로벌 투자자·대기업 간 실질적인 협력 및 투자유치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선을 보인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 강남구 글로벌스타트업센터(GSC)에서 '컴업(COMEUP) 2025' 미디어데이를 열었다. (왼쪽부터)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 김학균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한성숙 중기부 장관,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유종필 창업진흥원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다. 글로벌 VC, CVC 및 액셀러레이터까지 폭넓게 초청해 국내 유망 스타트업에 글로벌 투자자와 만날 기회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사전·자율매칭을 통한 1대1 미팅, 투자자 부스 운영, 유망 기업 벤처투자 설명회 연계 등으로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지원을 강화한다.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에는 메르세데스 벤츠, 현대자동차, 엔비디아, NHN 등 35개사가 참여해 전시부스 운영, 스타트업과의 협업 사례 공유, 1대1 미팅 등을 진행한다.

해외 국가 참여는 확대됐다. 작년 4개국이 설치했던 국가관은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일본, 캐나다, 호주, 앙골라, 시에라리온 등 총 7개로 늘었다.

소셜벤처스타트업 특화 세션도 마련했다. 김종규 식스티헤르츠 대표 등 3명의 창업가가 연사로 나서 기후 위기라는 사회적 문제를 혁신 기술로 해결해 가는 여정을 공유한다. 소풍벤처스, 임팩트재단 등 임팩트 투자자들은 현장에 부스를 차리고 상담에 나선다.

/김승호 기자

삼성중, 컨테이너선 7척 1.9조에 수주

포 지역에 2029년 11월까지 인도

삼성중공업은 아시아 지역 선주로부터 컨테이너운반선 7척을 1조9220억원에 수주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이들 선박은 오는 2029년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이다.

컨테이너운반선은 최근 친환경 교체 수요가 늘면서 액화천연가스(LNG) 이중연료 추진(DF) 선박을 중심으로 발

주가 증가하는 추세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계약으로 올 들어 총 69억 달러의 수주고를 기록했다. 선종별로는 LNG운반선 7척, 셔틀탱커 9척, 컨테이너선 9척, 에탄운반선 2척, 원유운반선 11척, 해양생산설비 예비 작업 계약(1기) 등 총 39척을 수주해 수주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했다. 현재까지 누계 수주잔고는 132척, 282억 달러로 안정적인 일감을 확보하고 있다. /유혜은 기자 dhaledhale@

HS효성첨단
'카본 코리아 2025' 참가

HS효성첨단소재가 19일부터 21일까지 양재 aT센터에서 열리는 '카본 코리아 2025'에 참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9일 열린 개막식에서는 HS효성그룹의 연구기술을 총괄하는 HS효성종합기술원의 김철 전무가 탄소섬유 융복합 산업 발전 유공자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김 전무는 초고강도·중탄성 탄소섬

유 상용화를 주도하며 국내 탄소소재 산업의 기술 자립과 경쟁력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철 전무는 "이번 대통령상 수상은 HS효성첨단소재와 연구진이 함께 이룬 성과"라며 "앞으로도 탄소소재 기술 자립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신제품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카본 코리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국내 유일의 탄소소재 산업 전시회로, 국내외 기업과 전문가들이 최신 기술과 산업 동향을 공유하는 자리다.

/원관희 기자 wkh@

2025 제3회 「글로벌 ACX 초월대상」 시상 및 컨퍼런스

공공 ACX 구축과 비즈니스 전략

일시 : 2025.11.26.(수) 13:40 ~ 17:10 | 장소 : 메타빌드빌딩 대강당

주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한국SW·ICT총연합회 **metro**

후원 행정안전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SW저작권협회, 한국데이터산업협회, 정보시스템감리협회, 한국PMO협회,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 한국시상용SW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제로트러스트보안협회, SW엔지니어링진흥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PMO사회적협동조합, 한국정보산업협회, 한국시·SW산업협회, 한국ICT융합협회, 국방인공지능융합협회, 한국빅데이터학회

시상 부문	표창	주관·후원기관 표창
기업·기관·개인	15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전자신문사, 메트로경제신문사, 한국빅데이터학회, 한국SW·ICT총연합회

[제1부] 제3회 글로벌 ACX 초월대상 시상식

일정	시간(분)	내용	비고
13:40~14:00	20'	VIP 티타임	
14:00~14:05	5'	시상식 개회	
14:05~14:30	25'	개회사	조풍연 회장 (한국SW·ICT 총연합회)
		환영사	류제명 차관 (과기정통부)
		축사	김 현 의원 (국회 과방위 (민주당 간사))
		축사	이해민 의원 (국회 과방위 (조국혁신당))
		축사	임문영 부위원장 (국가인공지능 전략위원회)
		격려사	강병준 사장 (전자신문)
		격려사	이장규 사장 (메트로경제)
14:30~15:00	30'	시상식 및 기념촬영	
15:00~15:20		Break Time	

[제2부] 컨퍼런스 : 공공 ACX 구축과 비즈니스 전략

일정	시간(분)	트랙 I	트랙 II
15:20~15:40	20'	[기조강연] 국가 인공지능정책 기본 방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진수 인공지능정책기획관)	
15:40~16:00	20'	OmniEsol의 공공기관 업무 및 서비스 혁신을 위한 AI 활용 전략 더존비즈온 전총재 상무	AIGen과 함께하는 양방향 바이브 코딩 혁신 토마토시스템, 이지울 연구소장
16:00~16:20	20'	공공AI 에이전트 활용전략과 비전 클라이언 박윤지 대표	AGI의 현재와 미래 ㈜PCN, 이금탁 전무
16:20~16:40	20'	Agentic AI를 이용한 SW Test 업무 혁신 사례 소개 와이즈와이어즈, 허태범 상무	AI경쟁력의 핵심, 데이터 품질 한국정보기술단 이동석 본부장
16:40~17:00	20'	공공AI 대전환 실천지침 투이컨설팅 이승봉 상무	공공 AX 통합플랫폼 구축전략 (LLM/RAG Ops, Agent Build, MCP/A2A) 메타빌드 오강탁 본부장
17:00~17:10	10'	경품 추천	

사전등록 : 한국SW·ICT총연합회 홈페이지 <https://www.kswict.or.kr/>

※ 본 행사 일정 및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음

문의 : 한국SW·ICT총연합회 사무국 (e-mail : kswict@kswict.or.kr, tel : 02-585-8510)

통신사, '2.6GHz 재할당' 대가 산정 충돌

“현재 가치” vs “과거 경매가”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T “동일대역 동일대가” 고수
LGU+ “시점·용도달라 동일 불가”
산정방식 따라 수천억 단위 변동
과기정통부, 이달 말 초안 공개



정부가 내년까지 5세대 이동통신 단독규격 전국망 구축을 추진하는 가운데, 6G 시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쟁도 시작됐다. /Pixabay

내년 3G·LTE 주파수 이용 기간 만료를 앞두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재할당 대가 산정 기준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핵심 쟁점인 2.6GHz(기가헤르츠) 대역을 두고 SK텔레콤은 '재할당 시점의 현재 가치'를, LG유플러스는 '과거 경매대가 반영'을 각각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2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3G·LTE 주파수 재할당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동일한 주파수 대역은 같은 대가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재할당 대가는 향후 주파수 이용에 대한 가격하므로 '재할당 시점'의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LG유플러스가 “재할당 대가는 전파법과 정부 기준에 따라 '가장 최근에 확정된 할당대가(과거 경매가)’

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정면 반박이다.

양사의 갈등은 2.6GHz 대역의 가치 평가 방식 차이에서 비롯됐다. SK텔레콤은 “과거 경매 낙찰가를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다면 한번 비싸게 산 주파수는 평생 비싼 비용을 내야 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른다”며 “2016년과 2021년 재할당 당시에도 정부는 초기 할당대가가 달랐던 동일 주파수에 대해 대가를 통일해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1년 재할당 당시 정부가 양사의 2.6GHz 40MHz폭을 가치 형성 요인이

동일한 그룹으로 분류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동일한 2.6GHz대역이라도 할당 시점(LGU+ 2014년, SKT 2016년)과 용도, 대역폭이 달라 가치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과거에 스스로 판단해 응찰한 가격을 재할당 시점에서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투자 안정성을 해친다는 논리다. LG유플러스는 이를 근거로 SK텔레콤이 2016년 경매 당시 지불한 높은 대가를 이번 재할당 산정식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산정 방식에 따라 통신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수천억 원 단위로 달라질 수 있어 양측의 신경전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르면 이달 말 공청회를 열고 주파수 재할당 계획과 대가 산정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재할당 대상은 내년 6월과 12월 이용 기간이 끝나는 3G·LTE 주파수로, 규모는 SK텔레콤 155MHz, KT 115MHz, LG유플러스 100MHz 등 총 370MHz 폭이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AI 반도체 팜 구축·실증’ 사업 완료

네이버클라우드 컨소시엄
국산 NPU 경쟁력 입증

팜 구축 ▲클라우드 플랫폼 조성·운영
▲4개의 AI 응용 서비스 실증 등 핵심
과업을 모두 달성하며, 국산 NPU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네이버클라우드 컨소시엄은 자사가 주관사로 참여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AI(인공지능)반도체 팜 구축 및 실증’ 사업의 3차년도 목표를 달성하며, 전체 과업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프로젝트는 국산 AI 반도체(국산 NPU) 기반의 고성능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산 NPU(신경망처리장치)의 성능을 실제 산업 환경에서 실증하는 국가 전략 사업으로 2023년 5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총 3개년에 걸쳐 진행됐다.

네이버클라우드 컨소시엄은 KT클라우드, NHN클라우드와 컨소시엄을 꾸려 국내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인 퓨리오사 AI, 리벨리온과 협력해 ▲연산용량 총 19.95PF(페타플롭스) 규모의 국산 AI 반도체

실증 과정에서는 다양한 AI 서비스가 구현됐다. 네이버클라우드 컨소시엄은 퓨리오사 AI와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LLM(거대언어모델) 기반 번역·챗봇 서비스를 실증했다.

이 서비스는 서울AI허브, 제주위미농협에 적용돼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소통을 돕고 있다.

KT클라우드와 NHN클라우드도 리벨리온과 의료 분야에 집중했다. 뇌 질환 진단·예측 AI 플랫폼을 가천대 길병원에 도입해 의료진의 정밀 검진과 업무 효율 제고를 지원했으며, 뇌파 분석 AI 서비스는 우리들녹지국제병원에서 우울증 조기 탐지의 임상적 유효성을 입증했다고 회사 측은 덧붙였다.

/김현정기자 hjk1@



사진은 LG유플러스 고객센터 상담사가 상담코칭을 받는 모습.

/LG유플러스

KT, 차기 CEO·새 이사회 동시 교체

주총 앞두고 지배구조 대수술
차기 CEO 후보 33명 압축
사외이사 4명 교체 절차 개시



서울 종로구 KT 본사의 모습. /뉴시스

KT가 차기 대표이사(CEO) 선임 절차와 함께 이사회 핵심 축인 사외이사 교체 작업에도 본격 착수했다.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를 기점으로 새로운 CEO와 재편된 이사회를 동시에 출범시켜 경영 쇄신과 조직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 2023년 경영 공백 사태 당시 선임됐던 이사진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번 주총이 KT 지배구조의 새로운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20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 결과 KT는 지난 19일 '사외이사 예비후보 추천 공고'를 내고 주주들을 대상으로 후보 추천을 받기 시작했다. 이번 공모는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 4명의 후임자를 선발하기 위한 절차다.

추천 자격은 KT 주식을 1주 이상,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에게 주어진다. 주주는 1인당 1명 이상의 예비후보를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 분야는 ▲미래기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회계 ▲경영 등 4개 분야다. 접수 기한은 오는 26일 오후 6시까지로, KT는 주주 추천과 외부 전문가 추천을 취합해 인선 자문단의 1차 평가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에 교체 대상이 된 사외이사는 최양희 한림대 총장(이사회 의장), 윤종수 전 환경부 차관, 안영근 세계회계사 연맹 이사, 조승아 서울대 교수 등 4명이다. 이들은 지난 2023년 6월, 구현모 전 대표의 연임 포기과 경영 공백 사태

속에서 비상 경영 체제를 수습하기 위해 선임된 인물들이다. 당시 7명의 사외이사가 일괄 사퇴한 후 새로 꾸려진 이사회의 주축이었으나, 이번 임기 만료를 끝으로 물러날 가능성이 높다는 업계의 중론이다.

나머지 사외이사 3명(김용현·김성철·장준영 등)은 지난 3월 주총에서 재선임돼 2028년 3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다. 다만 당시 재선임 과정에서 별다른 경쟁 없이 임기가 연장돼 일각에서 '셀프 재선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따라 KT는 이번 교체 과정에서 주주 참여를 확대하고 투명성을 강화해 지배구조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사외이사 선임과 맞물려 차기 대표이사 선출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6일까지 진행된 대표이사 후보 공개 모집과 사내 후보군, 외부 전문가 추천을 종합해 총 33명의 롱리스트(잠재 후보군)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KT 내부 사정에 정통한 전·현직 'KT맨'들과 관(官)·학(學)계 전문가들이 대거 지원하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되

지 않았으나, 사내 후보군으로는 이현석 커스터머부문장(부사장)과 안창용 엔터프라이즈부문장(부사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부문장은 B2C(기업·소비자 간 거래) 마케팅 전문가로 꼽히며, 안 부문장은 B2B(기업 간 거래)와 디지털 전환(DX) 사업을 이끌어온 점이 강점이다.

외부 출신 인사들의 하마평도 무성하다. KT 출신인 박윤영 전 기업부문장(사장)은 지난 CEO 선임 당시에도 최종 경합을 벌였던 인물로, 탄탄한 사내 지지 기반과 B2B 전문성이 돋보인다는 평가다. 이 외에 김태호 전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 남규택 전 KT 마케팅부문장, 박대수 전 KT텔레캅 대표 등도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관계 및 학계에서는 주형철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 차상근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초대 원장, 김재홍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거론되며, AI(인공지능) 및 ICT 정책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내세우고 있다.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대표이사 후보 심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선자문단을 비공개로 가동한다. 자문단은 후보자들의 기업 경영 경험, 산업 전문성,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역량 등을 다각도로 평가해 숏리스트(압축 후보군)를 추릴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연내 최종 후보 1인을 확정해 이사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최종 낙점된 차기 대표이사 후보는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규 사외이사들과 함께 선임안이 상정되며, 의결을 거쳐 2029년 3월까지 3년간 KT를 이끌게 된다. /김서현 기자

LG U+, AI기반 상담사 코칭 솔루션 개발

LLM 기반 'AI 오토 QA' 도입
부적절한 표현 바로 수정 보완

“5G 요금제가 있습니다”라고 즉시 피드백한다. 상담사는 어떤 표현이 잘못됐는지 즉각 확인하며 상담 역량을 빠르게 보완할 수 있다.

LG유플러스가 고객센터 전화 상담 품질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언어모델(LLM) 기반 상담사 코칭 솔루션 'AI 오토 QA'를 개발했다. 이 프로그램은 상담 종료 직후 AI가 대화 내용을 검수하고 즉시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월 150만 건에 달하는 상담을 모두 사람이 검수하기 어려워 일부 콜만 평가가 가능했고, 평가자 간 편차로 공정성 논란이 생기거나 상담품질 측정이 늦어졌다. 상담사에게 피드백이 전달되기까지 최대 일주일의 지연 개선 속도도 더했다.

AI 오토 QA 도입 후 상담사는 상담 직후 자칫 과한 존칭이나 부적절한 표현을 바로 수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G 요금제가 있습니다”라고 말할 경우 A

반복적인 평가 업무를 맡았던 교육 코치들은 세세한 감성 응대나 노하우 전수에 집중할 수 있어 코칭 효율도 향상됐다. 신규 상담사나 저년차 상담사도 개인 맞춤형 코칭을 통해 역량 향상 속도가 빨라지고, 고객은 상담사 간 편차가 줄어든 보다 일관된 상담 경험을 제공받게 된다.

AI 오토 QA는 LLM 기반 자체 모델을 활용하며, 대화 맥락을 단계적으로 분석하는 '생각의 사슬(CoT)' 방식을 적용해 다양한 실제 대화를 정교하게 판별한다. 예를 들어 고객의 “네, 알겠습니다”라는 답변에 대해 단순 동의 여부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 ‘이해·수용’인지 ‘형식적 종료’인지 구분할 수 있다. /김서현 기자

티머니 '강원도 통합 택시콜센터' 가동

티머니모빌리티가 강원도에서 '도단 위 통합 택시콜센터' 운영을 시작한다.

티머니모빌리티는 강원 택시업계와 손잡고 이달 19일 '강원도 통합 택시콜센터'를 정식 론칭했다고 20일 밝혔다.

티머니모빌리티는 전국 최초의 도단 위 통합 택시콜센터 운영을 통해 자사의 '지역 콜택시 상생 모델'을 충청, 경상,

전라도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통합콜센터 서비스 오픈은 지난 달 1일 체결된 '강원도 통합 택시콜센터 구축 업무 협약'의 후속 조치로 강원도 7개군(철원·화천·양구·인제·영월·횡성·홍천)의 개별 택시콜센터를 하나로 합친 국내 첫 사례다.

/김현정 기자

연내 '가상자산 제도화' 무산 위기... 선진화 입법 제동

정무위 법안 17건 모두 제자리
금융위 주도 2단계 법안 미제출
오는 12월 9일 국회 정기회 종료
원화코인 두고 당국 이견 지속
업계 "경쟁력 약화 우려" 표명



정치권에서 '가상자산 선진화'와 관련한 법안 논의가 늦어지면서, 연내에 관련법을 마련한다는 정부의 당초 목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뉴시스

정치권의 주요 정책목표였던 '가상자산 선진화'에 제동이 걸렸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을 비롯해 가상자산 관련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는 데에는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관련 논의와 법률안 마련이 늦어지면서 입법 시한을 놓쳤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업계에서는 제도 정비가 늦어질수록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경쟁력도 뒤쳐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20일 국회입법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17건이다. 11건은 기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며, 5건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요건 등을 규율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다만 17건의 법안 모두 정무위에 입안·상정됐을 뿐, 본회의 상정에 앞서 법사위로 넘겨진 법안은 한 건도

없다.

정부 주도의 입법에도 제동이 걸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연내 입법을 목표로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2단계'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관련한 내용을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개정과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허용'은 최근 정치권의 주요한 화두다.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주요국이 가상자산 선진화를 위한 법안을 마련한 가운데, 국내에서는 관련법 마련이 늦어지면서 국제 표준에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

서다.

정치권에서는 가상자산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 기존의 불투명한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데에 여·야 간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원화 코인'의 발행에도 여·야 간에 다소 견해차가 있지만 화폐주권 방어를 위한 원화 코인의 필요성에는 의견이 모이고 있다.

'가상자산 선진화'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에도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의 여러 의원들은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하나의 통일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는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았다.

'원화 코인'의 발행을 놓고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감독하는 금융위와 통화정책을 관장하는 한국은행 간의 견해차도 여전히 있다.

정치권에서 '가상자산 선진화'를 위한 법안 논의가 지연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관련 논의가 내년까지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올해 정기국회가 종료를 앞두고 있어 입법 시한을 맞추기 어렵다는 관측에서다.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이 효력을 발

휘하기 위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통상 상임위에서 여·야 간에 합의를 마치는 만큼 국회 본회의 통과에는 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지만 법사위 심사에는 통상적으로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올해 정기국회는 오는 12월 9일 종료되는 만큼, 사실상 기한을 놓쳤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

통상 정기국회 종료 이후에도 임시국회가 주최되는 만큼 관련 논의는 지속될 전망이다. 법안 발의를 비롯해 입법 과정을 원점부터 재시작하게 되는 만큼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선진화를 위한 법안 마련이 늦어질수록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경쟁력도 뒤쳐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국내의 가상자산 산업 환경은 관련 법안의 부재로 사후 규제 등을 우려하는 등 다소 위축된 상황"이라면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 입법이 늦어진다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력도 약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IMA·발행어음 '무늬만 모험투자' 경고

금감원, 여의도서 C레벨 간담회
설계·사후관리 완전판매 체계 주문
모험자본 25% 공급 의무강화

금융당국이 새롭게 IMA(종합금융투자계좌)·발행어음 사업자로 지정된 증권사들에 대해 "무늬만 모험자본 투자가 아닌 실질적 공급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라"고 주문했다. 불안전판매 발생 시 성과급 환수(clawback)까지 포함한 강화된 내부통제 체계 마련도 함께 요구했다.

금감감독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공동 1호 IMA 사업자),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키움증권(CFO·CRO·CCO·운용담당 등 C레벨 임원)과 간담회를 열고, IMA·발행어음 업무가 자본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사전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MA는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에만 허용되는 계좌로, 원금 지급 의무를 지면서 고객 예

탁금을 기업금융 자산에 투자해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구조다. 투자자는 손실 우려 없이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증권사는 대규모 자금을 활용해 회사채·대출 등 기업금융 투자처를 확대할 수 있어 업계 최대 관심사로 꼽혀왔다.

서재완 금감원 자본시장 부원장보는 "부동산 중심의 비생산적 유동성을 생산적 분야로 전환하지는 정부 정책 기조 아래 종투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의무비율 충족을 위한 '무늬만 모험자본 투자'가 아닌 실질적 모험자본 공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IMA·발행어음 조달액의 25%를 2028년까지 스타트업·벤처 등 모험자본에 공급해야 한다는 규정도 재차 확인했다.

금감원은 각사 CFO·CFO에게 조달·투자·사후관리 전 과정에서 건전성 관리 체계를 기존 대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서 부원장보는 "2022년 하반기 부동산 PF 위기가 보여주듯 특정 자산군 실패는 증권업 전반의 유동성 리스크로 번

질 수 있다"며 "단기 조달 비중이 큰 IMA·발행어음의 만기 구조와 자금 흐름 모니터링을 상시 체계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들을 대상으로는 완전판매 절차 구축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발생 시 임직원 성과급 환수 등 책임 있는 조치가 작동되도록 성과보상 체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내부통제 실효성을 강조했다.

당국은 앞으로 한투·미래와 함께 TF를 구성해 신규 IMA 상품의 설계·제조 단계부터 잠재적 문제를 사전 점검할 계획이다. 투자설명서·약관·운용보고서도 투자자 눈높이에 맞게 정비한다.

참석한 증권사 관계자들은 "종투사에서 역할과 책임을 인지하고 있다"며 "불완전판매 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유동성 지표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코스피 5000, 장기투자 인센티브 필요"

상장협, 장기투자 법개정 촉구
단기쏠림 확대로 장기전략 약화
장기보유자 우대제 강화 필요성

코스피 5000시대를 위해서는 장기 투자자 대상 복수의결권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0일 한국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한국상장회사정책연구원은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주주의 장기보유를 위한 제도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의결권·배당·세제 측면에서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3대 정책과제를 제시하며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주식시장 회전율은 200.8로 미국(68.5)의 약 3배, 일본(117.0)의 1.7배에 달한다고 나타났다. 장기매매보다 단기매매 위주의 거래가 활발하다는 지적이다.

핵심은 투자·회수 시점의 경영진이 달라질 가능성이 큰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인 우리나라 현실에서, 기업은 장기

연구·개발(R&D)을 포기하고 단기 주가 부양에 매몰된다고 짚었다. 주주 중심 경영이 강화될수록 단기매매·정보열세에 놓인 진짜 개인투자자는 소외되고 기관과 투기세력만 득세하는 구조적 모순에 직면해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첫번째 과제로 장기보유주주에게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테뉴어보팅(Tenure Voting)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두 번째는 장기보유주주에게 배당소득 분리과세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세 번째 과제는 주식 장기보유 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이다.

/신하은 기자 godhe@

코스콤, 금융사기 '24시간 안전망' 구축

증권업계 공동 금융사기 대응체계
야간·휴일도 24시간 지급정지 운영
보이스피싱 대응 기능 지속 고도화

금융사기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코스콤 통합콜센터가 자본시장의 '24시간 금융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5년 업계 최초로 도입해 증권사 공동 인프라로 출발했으며, 금융사기 피해 구제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책임지는 '금융소비자 지킴이'로 성장했다.

20일 코스콤에 따르면 올해 10월 누적 기준 코스콤 통합콜센터의 사기계좌지급정지 건수는 약 1만건, 일반 문의를 포함하면 10만건 이상에 달한다.

코스콤 통합콜센터는 지난 2014년 금융감독원의 금융사기 대응 체계 강화 요청에 따라 증권업권 전반의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탄생했다. 당시 증권사 계좌가 금융사기에 악용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금감원이 증권업계에도 은행권 수준의 '24시간 365일 지급정지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청한 것이다.

이에 코스콤은 개별 증권사의 인력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업계 최초로 공동 통합콜센터 구축을 제안했다. 2014년 10월 개발에 착수해 2015년 2월 정식 가동된 통합콜센터는 20개 증권사로 시작해 현재 30개 금융사가 참여하는 금융투자업계 대표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현재 코스콤 통합콜센터는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도 24시간 무중단으로 운영된다. 피해자는 금융사기 이용계좌 지급정지 요청을 통해 즉시 자금 유출을 차단할 수 있다.

2023년부터는 '본인계좌 일괄 지급정지 시스템'을 도입해 대응력을 향상



코스콤 본사 전경.

했다. 본인계좌와 일괄 지급정지 시스템은 피해가 우려되는 고객이 직접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를 일괄 정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현재 30개 금융투자회사가 이용 중이며, 영업시간 외에도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피해 예방이 가능하다.

코스콤은 변화하는 금융환경과 제도 변화에 맞춰 통합콜센터 시스템을 지속 고도화하고 있다. 2023년 통신사기피해 환급법 개정으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되자 관련 기능을 신속히 개발해 대응 체계를 정비했으며, 2024년에는 선불업자와 금융회사 간 정보공유 의무 신설에 따라 관련 기능을 추가 개발, 사기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코스콤은 앞으로도 상담 인력 교육, 시스템 모니터링, 반복 테스트 등 상시 운영 품질 관리를 꾸준히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신하은 기자

“노란봉투법, 원·하청 격차 해소 ‘진짜성장법’ 만들자는 것”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정년연장-청년일자리 충돌 의견 대기업·공공 맞고, 중소기업 둘러 연내입법, 노사이견 최대한 조율”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의 차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노동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 봉투법) 취지에 대해 “하청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단체교섭권을 보장해 원·하청 격차를 해소하고 동반성장하는 ‘진짜성장법’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최선을 다해 노조법 2·3조 개정취지에 맞게 현장 안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경영계·노동계 모두에서 제기되는 창구단일화 우려와 관련해 김 장관은 정부가 추구하는 노동정책의 대원칙을 ‘노사자치주의’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노사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대원칙은 ILO 백년의 지성 결과로 도출한 노사자치주의”

라며 “경영계는 자율교섭을 통해 사법화 경향을 줄이고, 노동계도 창구단일화가 단체교섭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 있지만 악용·선례 문제를 해결해 자율적 교섭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년연장이 청년 일자리와 충돌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20%는 맞고 80%는 틀린 얘기라고 했다. 김 장관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에선 분명히 충돌한다”면서도 “중소기업에

서는 청년이 없어 정년을 없애달라, 나아가 외국인노동자를 풀어달라 할 정도로 미스매칭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는 어떻게 일자리를 나누면서 고용을 확대할 것인지, 정년 개념이 없는 수많은 플랫폼 비정규직노동자는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각각 맞게끔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년연장 논의는 현재 국회 정년연장 TF에서 노사가 함께 논의하고 있으나,

노동계는 연내 법적 정년연장을, 경영계는 재고용, 더 나아가 선택적 재고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김 장관은 “정년연장을 연내 입법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최대한 노사 간의 이견을 조율하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을 제시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의 청년 고용 둔화는 구조적 요인이 크다고 진단했다. 김 장관은 “18개월 연속 고용률 하락은 기업의 경력직 선호, AI·로봇 대체, 지역 공동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산단 청년친화 환경 조성, 지역 미스매치 해소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상식이 통하는 일자리, 괴롭힘·임금체불·산재 없는 중소기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를 계기로 한 산업안전 강화 방향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울산 사고는 가슴 아프고 대통

령에게도 면목 없다”며 “정당한 전환 개념에 산업안전평가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국민들이 산재 감축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냐는 물음엔 “올해 예산에서 5000억원 정도의 산재 관련 예산을 증액했고 산업안전보건본부와 협업해 분명히 감축시킬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새벽배송 건강권 논란에 대해서는 “심야노동은 2급 발암물질”이라며 “필수 서비스인지 공론화가 필요하다. 금지할 수 없다면 건강 보호 대책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앞으로의 중점 과제에 대해 “산재 줄이는 일이 너무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50인 미만·영세 사업장 등 그동안 통계에 잡히지 않던 사고를 타깃팅해 더 깊이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연내 꼭 발의하고 싶다”며 “광장민주주의가 왜 일터 앞에서 멈추는가. 일터에서 헌법적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10월 누적 자동차 수출 596억弗 ‘역대최대’

산업부, 10월 수출액 55억 달러 대미수출 29% 급감, EU·靑 강세 누적 친환경차 수출액 8.1% 증가

올해 1월~10월까지 자동차 수출액이 596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유럽·아시아 시장의 견조한 수요와 친환경차 수출 호조가 전체 실적을 끌어올린 반면, 미국의 25% 관세 부과 여파로 대미 수출은 8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20일 산업통상부의 ‘10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10월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10.5% 줄어든 55억 4600만 달러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대미 수출은 21억 2400만 달러로 29.0% 급감하며 8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3월 이후 전월 대비 감소 폭이 커지며 미국 시장 부진이 완성차 수출 전체

를 압박하는 양상이다.

10월까지 누적 수출 실적은 북미(293억 6700만 달러·-13.4%)와 미국(247억 9300만 달러·-15.9%)이 부진했으나, EU(21.7% ↑), 기타 유럽(32.2% ↑), 아시아(39.1% ↑)에서 강한 증가세가 이어져 전체적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10월 친환경차 수출액은 19억 9700만 달러로 2.3% 증가했다. 물량 기준으로는 6만 4427대(0.9% ↑)다. 하이브리드차 수출이 4만 2683대(3.9% ↑)로 가장 많고, 전기차 1만 9247대(0.3% ↑), 플러그인하이브리드 2492대 순이다.

10월까지 누적 친환경차 수출액은 212억 2800만 달러로 8.1% 증가했다. 반면 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178억 100만 달러로 5.8% 감소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내수에서는 소형 넥쏘 효과로 수소전지차 판매가 140.2% 늘어난 687대를 기록했다. 전기차도 1만 9318대로 56.1% 증가했으나, 하이브리드(-13.0%)와 PHEV(-8.1%)는 줄었다.

10월 생산량은 30만 2893대로 17.6% 감소했고, 수출량도 20만 3140대로 16.5% 줄었다. 내수 판매는 12만 7138대로 12.8% 감소했다. 기업별 생산량은 ▲현대차 13만 9900대(-13.8%) ▲기아 10만 8064대(-16.6%) ▲한국GM 4만 944대(-21.1%) ▲KG모빌리티 9749대(-6.4%) ▲르노코리아 3687대(-71.5%)로 집계됐다.

산업부는 “추석 연휴와 휴무일 증가로 완성차 업체 조업일수가 전년보다 3~4일 줄어든 것이 생산·수출·내수 모두 감소한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중동 3개국에 ‘녹색산업 수주지원단’ 파견

기후부, 현지 물관리분야 협력 논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달 하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3개국에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을 파견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파견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는 중동 지역에서의 정부 간 협력·교류를 비롯해 우리 기업의 녹색산업 해외 수주 지원에 목적을 둔다. 오는 22일(현지시간)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환경수자원 농업부(MEWA), 국영수도공사(NW

C), 수자원협력공사(SWPC) 등의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현지 핵심국가전략인 ‘비전 2030’ 이행을 뒷받침할 물관리·하수처리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이와 연계된 주요 녹색 기반시설 신규사업 입찰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수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외교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11월 23일에는 현지 핵심 발주기관이 참여하는 ‘한-사우디 물산업 협력 세미나’를 개최해 양국의 물산업 정책과 혁신 기술을 공유하고 1:1 사업 상담을 진행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스마트농업 빅데이터 활용 성과 공유

농식품부 ‘성과보고회’ 개최 데이터 기반 농업혁신에 속도

스마트농업 빅데이터 플랫폼의 활용 성과가 공유되면서 데이터 기반 농업혁신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9일 충북 청주 오송에서 ‘스마트농업데이터 활용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사에서는 스마트농업 빅데이터 플랫폼인 ‘스마트팜코리아’에서 개발 중인 데이터를 실제 기술 및 서비스 개발에 활용한 사례가 공유됐다. 농식품부는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올해 중점 추진한 사업을 소개하고 향후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현장에서 개발된 민·관·학 활용사례

8개가 공개되면서 스마트농업의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 인공지능(AI) 기반 의사결정 등 구체적 성과가 확인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농협중앙회는 스마트팜코리아의 품목별 환경·생육정보를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우수농가의 재배환경을 시뮬레이션해 작물 생산량을 예측하는 모델인 ‘스마트팜 길라잡이’ 서비스를 개발했다.

경희대 연구팀은 스마트팜코리아의 딸기 온실 환경 및 제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수 농가의 시간대별 온도 조절 패턴을 재현하는 ‘우수 농가 모방 제어 시스템’을 개발했다. 2024년 스마트농업 AI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농어촌공 농업시설 안전진단 포럼

한국농어촌공사가 충남 예산에서 ‘2025년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진단 포럼’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8~19일 이틀간 열린 이 포럼은 미래 기후변화에 대비해 저수지와 양·배수장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진단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첫째 날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관리 정책방향’ 발표를 시작으로 기후위기 시대의 시설물 관리 방향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 참석자들은 기후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미래 기후 예측에 기반한 선제적 위험관리 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연세 기자



농협중앙회가 19일 서울 중구 본부에서 ‘청림농협 구현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농협

농협중앙회, 윤리의식·투명성 확보 의지

‘청림농협 구현 결의대회’ 개최

참석했다.

농협중앙회가 ‘청림농협 구현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윤리의식 및 투명성 확보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20일 농협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 중구 본부에서 열린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범농협 차원의 고강도 혁신을 통해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전국 대의원조합장 294명을 비롯해 농협중앙회장, 임원, 집행간부 등이

이 결의대회는 최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우려가 제기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보다 높은 윤리의식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고 농협은 밝혔다.

행사에서는 ▲신뢰받는 농협중앙회 구현 ▲깨끗하고 청렴한 농축협 실현 ▲국민에게 사랑받는 농협 도약 등 3가지 추진방향이 제시됐다.

/세종=김연세 기자



대한홍삼(주)

건강창업의 모든 것!

BH Since 1996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공식 파트너 모집

“대한민국 건강을 지켜온 30년의 노하우,
이제 당신의 성공비즈니스가 됩니다.”

대한홍삼 건강백화점이란?

건강에 대한 모든 해답을 한 곳에!

대한홍삼 건강백화점은 인기 있고, 가성비 좋은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제품을 한자리에 모아 고객이 직접 체험하고,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결합 매장입니다.

• 취급품목

다양한 브랜드 홍삼 / 다양한 브랜드 건강식품 / 다양한 브랜드 건강기기 / 다양한 브랜드 건강의류
다양한 브랜드 건강용품 / 의료기기 등

• 판매방법

매장 / 웹카탈로그(도·소매) / 복지쇼핑몰(회원판매) / 체험방 / 특판 / 방판

차별화된 경쟁력

- ✓ 무자본부터 대형 매장까지
- ✓ 인기 있고 이윤 높은 건강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급
- ✓ 자사 TV방송국(브레인TV)을 통해 많은 시간 지속적으로 광고하고 제품 판매를 지원하는 건강강좌 프로그램 제공
- ✓ 웹카탈로그 시스템 지원 (홍보, 신규영업, 매장상품 관리)
- ✓ 복지몰 시스템 지원 (신뢰 기반의 고객 관리, 수익률 창출하는 새로운 기회)
- ✓ 30년 전통! 헛터그룹 및 협력사의 지원과 노하우의 집약 무료교육

창업비용

최저 창업비 (MIN. 398만원)로
최대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창업유형

유형 1. 매장 창업(일반매장, 건강체험관, 건강카페, 영업센터)
유형 2. 무점포 창업

BH 대한홍삼 [주] **창업문의 : 1522-7585**

www.koreahongsam.co.kr 본사 : 서울시 금천구 가마산로 96
대륭테크노타운8차 601호



Since 1996
헛터그룹
Haetter Group

(주)헛터
(주)헛터방송_브레인TV
(주)헛터라이프_헛터복지몰
한삼장홍삼(주)
대한홍삼(주)

전국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수업 정상화 집중

서울시교육청, 교육지원청 등에 파업 대책 상황실 설치하고 대응 정근식 “집단교섭 타결 위해 노력 학생 피해 최소화해 모든 역량 투입”



학교 급식·돌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한 20일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 조합원들이 서울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열리는 집회 참석을 앞두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총파업이 20일 시작되면서 서울 교육현장에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돌봄·급식 등 필수 교육활동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며 수업 정상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이날 총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본청과 교육지원청, 각 학교에 파업 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직종별 대응 매뉴얼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파업 규모와 현장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유치원·초등 돌봄, 특수교육 분야에는 교직원을 최대한 투입하고, 급식은 식단 간소화·도시락 자급·급식대용품 제공 등으로 조정한다. 학부모 안내를 위한 가정통신문도 이미 사전 발송했다.

이번 파업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참여한 집단(임금)교섭 결렬이 직접적인 배경이 됐다. 노조 측은 ▲기본급 인상 등 임금격차 해소 ▲방학 중 비근무자 생계대책 마련 등을 요구해 왔으나, 최종 협상이 불발되면서 파업을 선택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파업 이전까지 노조와의 대화를 이어오며 파업 축소와 조정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정근식 교

육감은 최근까지 교육공무직 노조와 면담을 진행하며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 시교육청은 혹시 모를 장기 파업 상황에도 대비해 부당노동행위 예방 지침과 직종별 대체 인력 운용 계획 등을 담은 종합 파업 대응 계획을 마련한 상태다.

정 교육감은 “현재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있으나 집단교섭 타결을 위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최선을 다해 협

상에 임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학생 피해를 최소화하고 교육활동 안정화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파업은 급식·돌봄 등 학교 일상 운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학부모의 우려도 적지 않다. 시교육청은 파업 상황을 실시간 점검하며 학교 수업 운영 차질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경기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

경기도는 2025년 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3건을 선정했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빈집 철거 부지 공공활용 시 재산세 부담 완화 확대 ▲청년 등 무주택자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제도혁신 추진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법 규정 적용 완화다.

‘빈집 철거부지 공공활용 시 재산세 부담 완화 확대’는 빈집 철거 후 토지를 공공활용할 때 5년간 재산세를 완화하던 것을 공공활용 전체 기간 동안 철거 전 주택 수준으로 재산세를 동결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도는 공익시설 확충, 도시미관 개선, 지역주민 안전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했다.

‘청년 등 무주택자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제도혁신’은 경기도형 적금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에 청년계층을 신설하고, 공공주택사업자 법인세 면제와 재산세 장기감면 등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청년·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공공분양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도심 공공임대 확충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법 규정 적용 완화’는 건축법상 건폐율·용적률 산입 적용을 제외해 경계지역 소상공인과 주민의 애로를 완화한 점 등을 높게 평가받았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서울시, ‘매력가든·동행가든 프로젝트’ 목표 조기달성

연말까지 목표 115% 달성 계획 총 68만㎡ 부지, 정원으로 변신



지난해부터 3년간 서울 곳곳에 1007개의 다양한 정원을 조성하는 ‘매력가든·동행가든 프로젝트’가 1년 앞당겨 조기 완성됐다. 사진은 강서구에 설치된 구조물 녹화. /서울시

서울 곳곳에 생활권 정원을 확충하는 ‘매력가든·동행가든 프로젝트’가 당초 계획보다 1년 앞서 목표를 달성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3년간 1007개 정원 조성 목표를 이미 넘어선 1010개 정원을 완성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연말까지 140곳을 추가로 조성해 목표의 115%를 채우겠다는 계획이다.

‘매력가든·동행가든 프로젝트’는 시민 누구나, 어디서든 정원을 만날 수 있도록 가로변, 유희지, 하천변, 주택가 안팎 등 서울 도심 곳곳에 정원을 조성하는 ‘정원도시 서울’의 주요 핵심 사업 중 하나다.

이번 프로젝트 조기 달성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협력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게시 설명이다. 당초 서울시가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25개 전체 자치구가 동참의사를 보이면서 조성 속도가 크게 앞당겨진 것이다. 1010곳 중 서울시 추진이 741곳(73%), 자치구 추진이 269곳(27%)이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정원으로 변

화한 부지는 총 68만㎡(약 2만5000평). 여의도공원(23만㎡)의 3배, 국제 규격 축구장(7140㎡) 약 95개에 달하는 크기다. 특히 시멘트 등 인공포장을 제거하고 녹지를 조성하거나, 버려진 공간을 정원으로 되살려 새롭게 녹지로 변화시킨 곳이 절반(34만㎡)으로 회색 도시

를 녹색으로 물들이고 숨결을 불어 넣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특히 계절마다 특색있는 정원을 연출하기 위해 개화 시기를 달리한 교·관목 113만8502주, 초화류 408만7225본을 심어 다채로운 가득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 68만㎡ 규모의 녹지가 신규·재조성됨에 따라 이산화탄소 약 469톤을 줄여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이 일상 속에서 다채로운 유형의 정원을 가까이 체감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밝혔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매력가든·동행가든을 시작으로 시민이 정원 안에서 행복한 일상을 누리고, 서울을 찾는 방문객이 도시의 매력을 느끼도록 ‘5분 정원도시 서울’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인천시 지난달 주택 매매가 1년 만에 상승 전환

인천시는 인천 지역의 지난 10월 주택 매매가격이 1년 만에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됐고, 전·월세가격은 오름세를 보였다

시가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통계정보를 분석한 ‘2025년 10월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인천의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전월 0.04%에서 0.07%로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전환됐다.

지역별로는 서구(-0.09%→0.13%), 동구(0.01%→0.11%), 부평구(-0.06%→0.07%), 중구(0.03%→0.05%), 계양구(-0.06%→0.05%), 미추홀구(0.02%→0.04%), 남동구(0.01%→0.03%), 연수구(-0.09%→0.02%) 순으로 상승했다.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은 전월 0.06%에서 10월 0.14%로 상승했고, 서구(0.18%→0.37%), 동구(0.04%→0.18%), 미추홀구(0.11%→0.13%), 연수구(-0.05%→0.13%), 계양구(0.02%→0.10%), 부평구(0.03%→0.06%), 남동구(0.02%→0.05%) 등 대부분 상승했으며, 중구(0.04%→0.01%)는 상승폭이 둔화됐다.

월세가격지수 변동률은 전월 0.16%에서 10월 0.15%로 상승했으며 동구(0.45%→0.56%), 남동구(0.23%→0.25%), 서구(0.37%→0.23%), 부평구(0.10%→0.11%), 미추홀구(0.04%→0.09%), 계양구(0.13%→0.08%), 중구(0.06%→0.07%), 연수구(0.01%→0.02%) 순으로 상승했다.

/인천=김학철 기자 press412@

서울시교육청, ‘온 가족 북웨이브’ 1년 성과 돌아본다

오는 23일 성과공유회 열어

서울시교육청이 시민 참여형 가족독서 캠페인 ‘온 가족 북웨이브’의 1년 성과를 정리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문해력 향상과 가족 독서문화 확산을 목표로 한 캠페인의 참여가 크게 늘면서, 올해 행사에는 완주 가족과 시민,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독서 축제가 마련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오는 23일 동국대학교 남산홀에서 ‘2025 북웨이브, 1년간의 독서 항해일지’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북웨이브 100일 챌린지’ 완주 가족, 북웨이브 크루, 학생·시민 등이 참여하는 서울시교육청 대표 독서문화 행사다.

‘북웨이브’ 캠페인은 ‘책 읽는 나, 함께 읽는 가족, 독서공동체 서울’을 비전으로 도서관·평생학습관이 주도하는 시민참여형 독서운동이다. ‘하루 20분 가족 독서 실천’을 중심으로 ▲100일 챌린지 ▲북웨이브 크루 ▲북웨이브 한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범시민 독서문화를 확산해왔다.

올해 참여 시민은 약 5만5000명에 달

해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으며, 참여 가족과 협력기관도 확대되면서 ‘함께 읽는 가족문화’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이번 성과공유회에서는 캠페인의 연간 성과와 참여 기록을 시민과 나누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사전 행사에서는 용산도서관이 운영하는 가족 독서 체험부스가 마련되고, 상시 전시에서는 1년간의 활동을 담은 ‘온 가족의 독서 항해일지’ 특별전이 열린다. 1부 성과공유회에서는 연간 성과 발표와 100일 챌린지 완주 가족·크루 인증서 수여가 진행되며, 2부에서는 ‘눈물

바다’의 서현 작가가 그림책 ‘호랑떡집’을 소재로 ‘맛있는 그림책 이야기’ 북콘서트를 선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성과공유회를 통해 ▲도서관·평생학습관 중심 독서문화 확산 성과 공유 ▲가족·시민의 자발적 독서 실천 강화 ▲2026년 북웨이브 캠페인의 새 도약 기반 마련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사전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이 함께 독서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북웨이브는 단순한 독서운동을 넘어 가족과 이웃이 함께 성장하는 서울시교육청 독서캠페인의 대표 모델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유통 멤버십 후발주자, 진입장벽 낮춘 '실속형' 전략 수정

쿠팡·네이버 '양강구도' 밀려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 정리
11인가, 무료 '11인가플러스' 도입
고객 120만 돌파, 영업손실 줄여
컬리, 1900원 '컬리멤버스' 공략
분기 영업이익 61억 3분기째 '흑자'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이 올해를 끝으로 멤버십 운영을 종료한다. /신세계

신세계그룹이 운영한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이 쿠팡·네이버 멤버십에 밀려 올해를 끝으로 운영을 종료한다. 멤버십 양강의 점유율이 높아지자 다른 이커머스 업체들은 혜택 종류를 늘리기 보단 경쟁력 있는 확실한 하나에 집중하는 새로운 멤버십 전략 구축에 나섰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은 온·오프라인 6개 계열사 통합 멤버십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을 올해까지만 운영하고 종료할 방침이다. 내달 초 고객들에게 멤버십 종료 공시 공지할 예정이며, 기존 가입자 혜택은 1년간 유지하는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2023년 6월 출범한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은 연회비 3만원에 상응하는 적립금 페이백과 5% 할인 등을 내세우며 한국판 아마존 프라이ม์을 꿈꿨다. 하지만 지난 8월 스타벅스 멤버스바 음료

쿠폰을 폐지하고 지난달 G마켓 할인 한도와 면세점 혜택 기준을 높이는 등 혜택이 줄어들며 소비자 이탈이 이어졌다.

지난해 5월 한 달 동안 연회비를 4900원으로 내리는 프로모션을 열기도 했지만 상시가가 됐다. 신세계그룹은 SSG닷컴, 이마트, 백화점 등 계열사마다 새로운 멤버십을 선보일 계획이다.

신세계의 멤버십 정리는 경쟁사인 쿠팡·네이버와 경쟁에서 밀려난 결과로 풀이된다. 이동통신 전문 조사기관 컨슈머인사이트 자료에 따르면 쿠팡·네이버의 합산 멤버십 이용률은 2023년 하반기 51%에서 2025년 상반기 62%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11인가의

우주패스는 이용률이 8%에서 3%로 줄어 들었다. 롯데 역시 통합 멤버십 '롯데오너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올해 2월 마트 혜택을 없애며 존재감이 희미해졌다.

쿠팡은 3분기 로켓배송·로켓프레시·로켓그로스를 포함한 프로덕트 커머스 부문 매출이 지난해 대비 18% 늘어나고, 활성고객 수는 2470만명으로 1년 새 10% 증가했다. 네이버 역시 유료 멤버십 강화 효과로 커머스 부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다.

황진주인하대 소비자학과 겸임교수는 "쿠팡은 물류, 네이버는 검색과 콘텐츠로 소비자의 일상을 장악해 강력한 락인(Lock-in) 효과를 구축했는데 다른 연합형 멤버십은 후발주자에 이용 빈도가 낮은 계열사도 많아 소비자 입장에서 효용이 떨어진다"며 옴니채널(Omni-channel)도 편하지 않아 연간 이동이나 혜택 연결성 측면에서 매끄럽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거대 플랫폼 사이 다른 유통사는 생존을 위한 전략 수정에 나섰다. 여러 콘텐츠를 제공하는 범용성 있는 멤버십이 아니라 진입 장벽을 낮춘 실속형으로 선회한 것이다.

11인가는 SK텔레콤과 연계했던 유료 멤버십 '우주패스' 대신, 지난해 11

월 적립과 할인에 초점을 맞춘 무료 멤버십 '11인가플러스'를 도입해 반전을 꾀하고 있다. 11인가플러스는 론칭 후 120만 고객을 돌파하며 11인가의 3분기 영업손실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 컬리는 월 1900원에 적립금 2000원을 돌려주는 초저가 멤버십 '컬리멤버스'로 틈새시장을 공략 중이다. 컬리는 올해 3분기 영업이익 61억원을 기록하며 3분기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거뒀다.

다만 이러한 가성비 전략이 장기적인 충성 고객 확보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가격 경쟁력만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멤버십 팬덤을 구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황 교수는 "무료나 초저가 자체가 충성 고객을 만드는 힘은 약하다"며 "단기간에 혜택만 누리고 구독을 중지하는 '체리피커(Cherry Picker)'를 늘리는 구조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결국 플랫폼 본연의 경쟁력이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황 교수는 "컬리처럼 프리미엄 큐레이션이나 신선 배송 등 플랫폼 자체의 코어 경험이 확실한 경우라면 낮은 진입 장벽이 구매 유인이 될 수 있다"면서도 본질적인 경쟁력 없이 가격만으로 승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GS25가 무신사 스탠다드와 손잡고 히텐다드 이너웨어 상품을 선보인다. /GS25

GS25-무신사 맞손 겨울의류 라인업 확대

편의점 GS25가 영하권 추위에 맞춰 무신사 스탠다드와 손잡고 겨울의류 라인업을 확대한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25는 20일부터 '무신사 스탠다드 익스프레스' 겨울 신상품을 출시했다. 이번에 선보이는 상품은 보온성을 강화한 기능성 이너웨어 '히텐다드' 맨즈 크루 넥 티셔츠와 기본 디자인의 '크루 넥 긴팔 티셔츠' 2종이다.

'히텐다드'는 기능성 원사를 사용해 보온성을 높였으며, 몸에 밀착되는 실루엣으로 아우터 안에 입기 적합하다. '크루 넥 긴팔'은 부드러운 코마사면 100% 소재를 사용하고 넥라인과 소매에 스판 원단을 적용해 내구성을 높였다.

GS25는 현재 전국 5000여 개 매장에서 '무신사 스탠다드 익스프레스'를 운영 중이다. 무신사 상품 매출은 최근 일주일(11월 12일부터 18일까지) 기준 출시 초기(3월 5일부터 11일까지) 대비 181.2% 증가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손종욱 기자

SPC삼립, 프리미엄 삼립호빵 2종 출시

전통적 단맛 위해 감주·흑당 사용

SPC삼립이 창립 80주년을 맞아 맛과 풍미를 강화한 '프리미엄 삼립호빵' 2종을 출시했다.

1945년 황해도 웅진에 문을 연 빵집 '상미당(賞美堂)'으로부터 시작된 SPC삼립은 지난 80년간 대한민국 베이커리 산업을 선도하며 다양한 혁신 제품을 선보여 왔다. 대표 제품 중 하나인 '삼립호빵'은 1971년 첫 출시 이후 반세기 넘게 겨울철을 대표하는 국민 간식으로 사랑받아 왔으며 누적 판매량 68억 개를 기록, 세대를 잇는 스테디셀러로 자리잡았다.

SPC삼립은 80년간 축적된 기술과 역량을 집약해 원조 호빵의 품격을 높인 프리미엄 제품을 공개했다. SPC삼립이 주목한 원료는 전통적으로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하던 '감주'와 '흑당'이다. '맛의 깊이를 더하다'라는 콘셉트로 K-전통 원료에 현대적인 제빵 기술을 결합해 풍미를 극대화했다.

'감주통팔호빵'은 쌀과 누룩을 발효해 만든 전통 '감주'의 은은한 단맛과 통팔의 식감을 살린 제품이다. SPC삼립의 연구진들은 부드럽고 은은한 단맛을 내는 감주를 만들기 위해 최적의 온도와 발효시간을 찾아냈다.

/신원선 기자

꼬북칩, 남아공·UAE 진출 총 5대륙에 'K-스낵로드'

오리온, 남아공 SPAR 300곳 입점
두바이 등 UAE 도시에도 수출 성사

꼬북칩이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에 진출했다. 이로써 기존 아시아, 미주, 유럽, 오세아니아에 이어 아프리카까지 5대륙에 진출하며 K-스낵로드를 확장하게 됐다.

오리온은 올 11월부터 남아공 SPAR의 프리미엄 슈퍼마켓 300여 점포에서 꼬북칩 '콘스프릿', '초코츄러스맛', '카라멜팝콘맛' 등 3종의 판매를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SPAR는 케이프타운, 요하네스버그 같은 주요 대도시에서 대형마트 및 슈퍼마켓 체인을 운영하고 있다.

오리온은 지난 6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식품 전시회 '아프리카 푸드 쇼(Africa Food Show)'에 참여했다. 꼬북칩 특유의 네 겹구조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한 식감과 글로벌 소비자 취향에 부합하는 다양한 맛으로 당시 전시회에 모인 현지 바이어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미국 코스트코, 프랑스 까르푸 등 글로벌 유통사에서 인정받은 대표 K-스낵 브랜드로 인식되면서 SPAR 외에도 2~3곳의 현지 대형 유통사들과 입점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아프리카 대륙 전체 GDP 약 15%를 차지하는 최대 경제국이자 34세 이하 인구비율이 전체의 61%에 달하는 '젊은 소비시장'이다. 입점 국가로의 확장도 용이해 K-스낵



오리온 꼬북칩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SPAR 매장에 진열되었다. /오리온

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으로 꼽힌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K-콘텐츠 열풍과 맞물려 한국 식품이 '프리미엄 제품'으로 알려지면서 현지 소비자들 사이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오리온은 두바이, 아부다비 등 UAE의 여러 도시에도 꼬북칩 수출을 성사시켰다. 두바이에 본사를 둔 유통업체 GSL(Golden Star International LLC)을 통해 현지 시장 특성을 고려한 비(非)할랄 마켓을 중심으로 입점을 시작했으며, 향후 입점 국가로 판매망을 넓혀갈 계획이다.

2017년 출시된 꼬북칩은 아시아, 미국, 호주 등 여러 국가로 진출하며 글로벌 시장을 넓혀왔다. 지난해 영국, 스웨덴, 아이슬란드 코스트코를 시작으로 올해 9월에는 프랑스 전역 까르푸(Carrefour) 매장 약 1200개에 입점하며 유럽 시장도 확대해 가고 있다. 현재는 전 세계 5대륙, 30개국에서 판매가 되며 K-스낵을 대표하는 제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비아신세계 론칭 100일... 상담창구 신설

28일 신세계계 센텀시티점에 오픈

신세계백화점의 프리미엄 여행 플랫폼 비아신세계가 론칭 100일을 맞아 오프라인 상담 창구를 신설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세계백화점은 오는 28일 센텀시티점 4층에 트래블 컨시어지를 오픈한다. 이는 지난 8월 론칭 이후 늘어나는 오프라인 상담 수요를 반영한 결정이다. 여행 전문가가 상주해 고객 취향에 맞는 상품 추천부터 상담, 예약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신세계백화점 앱을 통해 상담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신

세계는 센텀시티점 운영을 시작으로 향후 타 점포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오픈 기념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상담 고객에게 인형 키링을 증정하며, 여행 상품 예약 고객에게는 김해공항에서 인천 또는 김포공항으로 이동하는 항공편을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11월 한 달간 제휴카드로 일정 금액 이상 결제 시 3%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비아신세계는 프라이빗 투어, 호텔 객실 업그레이드 등 차별화된 혜택과 임윤찬 카네기홀 리사이틀 등 희소성 있는 프리미엄 콘텐츠를 확보하며 호평받고 있다.

/손종욱 기자

현대백그룹 계열사 12곳 ESG평가 'A등급' 획득

현대백화점그룹이 한국ESG기준원(KCGS)의 '2025년 ESG 평가'에서 13개 상장 계열사 중 12개사가 통합 A등급 이상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통합 A등급 이상을 받은 계열사는 지주사인 현대지에프홀딩스를 비롯해 현대백화점, 현대홈쇼핑, 현대그린푸드, 한섬, 현대리바트, 현대퓨처넷, 현대이지웰, 현대에버다임, 현대바이오랜드, 지누스, 대원강업 등 12곳이다.

특히 현대백화점은 유통업계 최초로 3년 연속 통합 A+등급을 받았다.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3000톤 이상 줄이고 '비닐 투비닐'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등 친환경 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현대바이오랜드도 올해 처음 통합 A+등급을 획득하며 코스닥 상장사 중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현대지에프홀딩스 등 10개 계열사는 통합 A등급을 받았으며, 대원강업은 그룹 편입 후 ESG 체계를 강화해 2년 만에 C등급에서 A등급으로 상향됐다.

지배구조(G) 부문에서는 13개 상장 계열사 모두 A등급을 획득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지주사 체제 전환 이후 중장기 배당정책 수립, 자사주 소각 등 주주지배고 노력을 지속해왔다.

/손종욱 기자

애경산업, 日·美·유럽 등서 화장품 브랜드 현지화 착수

日 코스트코서 전용 제품 선보
美 소비자 맞춤 브랜드 '시그닉'
퓨어서울과 英 판로 구축 '맛손'
'두바이 뷰티 월드'서 신규사업 모색



에이지투웨니스가 일본 코스트코 온·오프라인에서 출시된다. /애경산업

애경산업이 수출국을 다변화하며 글로벌 화장품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적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신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현지화 전략과 포트폴리오 확장에 나선 것으로, 중국 이후 시장 안착 여부가 주목된다.

20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애경산업이 올해 하반기 들어 글로벌 시장에서 화장품 사업을 확장하며 수익성 개선을 위한 신성장동력 마련에 분주하다. 특히 일본, 미국, 유럽 등에서 브랜드 현지화에 착수했다.

애경산업은 일본에서 드럭스토어, 온라인 쇼핑몰 등을 비롯해 대형 유통 채널로 공급을 늘리고 있다.

메이크업 브랜드 에이지투웨니스(A

GE20'S)의 경우 일본 코스트코에서 브랜드 입지를 넓힌다. 오프라인 매장 37개 전점과 온라인몰로 입점하게 되면서 현지 전용 제품으로 개발한 '베일 누디 에센스 팩트 글로우'를 선보인다.

베일 누디 에센스 팩트 글로우는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이다. 일본 뷰티 시장 내 선호 성분인 '비타민C 유도체'를 함유해 촉촉한 메이크업이 가능하다.

애경산업은 일본에서 메이크업 브랜드 '루나' 신제품도 지속 추가해 젊은 소비자층을 확보하고 있다. 그라인딩 컨실버터, 컨실 블렌더 팔레트 등은 이색적인 K뷰티 제품력을 갖추면서도 현지 뷰티 유행이 반영됐다. 그라인딩 컨실버터는 부드러운 밤 제형으로 처방됐지만 시계방향으로 돌리면서 사용해 원하는 양을 조절할 수 있는 제품이다.

컨실 블렌더 팔레트는 일본 소비자의 다크서클과 잡티 고민에 적합한 색상을 조합한 것이 특징이다. 이 제품은 지난 달 일본 대표 온라인몰 쿠팡의 메가포 행사에서 인기 제품 종합 1위에 올랐다.

애경산업은 미국에서도 현지 전용 브랜드를 내놓으며 시장 공략에 시동을 걸었다. 올해 9월 새롭게 출시한 '시그닉'은 2535 글로벌 소비자 맞춤형 브랜드다. 효과적이면서도 빠른 피부 관리가 가능한 고기능성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

애경산업은 유럽, 중동 등 신흥 K뷰티 시장 개척에도 나섰다. 영국에서는

런던, 맨체스터 등 주요 도시 중심으로 K뷰티 편집숍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 유통사 퓨어서울과 협업해 판로를 구축하고 있다. 일본 등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한 루나 제품을 먼저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지난달에는 두바이에서 열린 중동 지역 최대 규모의 뷰티 및 웰니스 박람회 '두바이 뷰티 월드'에 참가해 신규 사업 기회를 모색했다. 기업 부스를 마련하고 스킨케어, 메이크업, 헤어·바디·구강관리용품 등 폭넓은 브랜드를 한 자리에서 소개했다.

이와 함께 해외 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에서도 매출 회복과 브랜드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틱톡 등 이커머스 중심으로 마케팅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애경산업의 화장품 사업은 올해 매분기 부진을 겪고 있다. 1분기 459억원, 2분기 625억원, 3분기 515억원 등을 기록하며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7%, 14%,

10% 줄었다. 화장품 사업 영업이익도 악화되면서 1분기 11억원, 2분기 68억원, 3분기 21억원 등에 그쳤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88%, 46%, 46% 쪼뼛다.

화장품 사업을 포함해 올해 3분기까지 누적한 전체 실적에서도 역성장세가 나타났다. 누적 매출은 491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했고 누적 영업이익은 24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축소됐다.

같은 기간, 중국 매출도 지난해 1189억원에서 올해 969억원으로 줄었다. 다만 중국 외 국가 지역에서 567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 늘어난 규모다.

애경산업 측은 "국내외 소비 환경 변화와 최신 뷰티 시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시장별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중장기적 성장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광동제약, '녹용당귀등 복합추출물' 연구 수상

식품영양과학회 국제학술대회 수상
국내 첫 녹용 기반 기능성 원료 사례

광동제약은 2025 한국식품영양과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녹용당귀등 복합추출물' 기능성 연구결과로 우수포스터 발표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녹용당귀등 복합추출물은 전립선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소재다. 광동제약이 자체 개발하고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개별인정형 기능

성원료(제2023-16호)로 허가받은 국내 첫 녹용 기반 원료다.

특히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천연물 기반 기능성 원료의 체계적 검증 사례라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해당 연구는 전립선 비대 증상을 가진 40~75세 성인 남성 103명을 대상으로 12주간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녹용당귀등 복합추출물 또는 위약을 섭취했다.

그 결과 녹용당귀등 복합추출 500mg 섭취군의 국제전립선증상점수에서 대조

군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선이 확인됐다. 요절박·빈뇨·잔뇨감·복합배뇨·야간뇨·악한 배뇨·생활만족도 등 7개 세부 항목에서도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박일범 광동제약 천연물융합R&BD 본부장은 "식·의약 통합 관점에서 천연물 소재 발굴과 효능 검증, 표준화를 지속하고 있다"며 "천연물 기반 기능성 연구의 범위와 깊이를 확장해 연구 신뢰도를 확보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아모레퍼시픽, '이니스프리' 연말 한정판

'유어 스파클링 홀리데이' 선보

아모레퍼시픽은 이니스프리에서 2025 홀리데이 컬렉션으로 '유어 스파클링 홀리데이(더욱 눈부신 연말)'를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유어 스파클링 홀리데이는 이니스프리 대표 제품인 그린티 씨드 히알루론산 수분 크림 세트, 레티놀 시카 흔적 앰플 세트, 레티놀 그린티 PDRN 스킨부스터 앰플 세트, 마이 퍼퓸드 핸드크림 스펙셜 세트 등 총 4가지로 구성됐다.

아모레퍼시픽에 따르면 특히 그린티 씨드 히알루론산 수분 크림은 글로벌 인기 제품으로 30초에 1개씩 팔리는 재구매율 1위 제품이다. 수분 충전 및 보습 성분인 뷰티 그린티 추출물과 5종 히알



이니스프리 2025 홀리데이 컬렉션 '유어 스파클링 홀리데이(YOUR SPARKLING HOLIDAY)' /아모레퍼시픽

루론산을 함유한다.

이와 함께 이번 한정판에는 이니스프리 세럼과 크림의 투명하고 빛나는 제형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제품 디자인이 더해져 연말 분위기와 소장 가치를 높인다.

이니스프리 공식 온라인몰과 국내 148개 가맹점을 포함한 오프라인 매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청하 기자

유한양행 오는 30일까지 버들장터 '블랙프라이데이' 진행

연중 가장 큰 폭 할인·혜택 제공

유한양행은 오는 30일까지 자사 공식 온라인몰 버들장터에서 '블랙프라이데이'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1년에 단 한 번 열리는 만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고객들이 실질적인 구매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사용 후 재발급이 가능한 무제한 쿠폰팩을 선보인다.

행사 상품군은 건강기능식품, 생활용품, 구강 관리, 뷰티, 반려동물용품, 선물세트 등 폭넓게 구성돼 있으며 각 카테고리 인기 제품에 최대 할인이 적용되고 있다. 또 연말을 맞아 가족, 지인 등 고마운 이들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실속형 선물도 마련해 활용도를 높였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버들장터 블랙프라이데이는 연중 가장 큰 폭의 할인과 특별한 혜택을 제공해 많은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쇼핑 경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만족 서비스와 이벤트를 통해 온라인몰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맥도날드, 크리스마스 맞이 신메뉴 4종

크리스마스 트러플 치즈버거 등 선보

맥도날드가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깊고 풍부한 맛의 '크리스마스 트러플 치즈 버거' 2종을 포함한 연말 신메뉴 4종을 출시한다.

맥도날드의 크리스마스 시즌 신메뉴 4종은 각각 ▲크리스마스 트러플 치즈 버거 ▲크리스마스 핫 트러플 치즈 버거 ▲크리스마스 트러플 치즈 머핀 ▲메리 베리 맥피즈로 구성됐다.

'크리스마스 트러플 치즈 버거'는 지난해 첫 출시 당시 프랑스 남부 지방의 대표 겨울 요리 '알리고(Aligot)'와 고급 향신료 트러플의 향긋함을 결합한 이국적인 맛으로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던 메뉴다. 맥도날드는 세 가지 종류의 치즈와 감자를 섞어 만든 알리고를 바삭한 크로켓 형태로 재해석해 맛과 식감의 균형을 살렸다. 여기에 송로버섯 오일과 가루로 만든 트러플 랜치 소스를 더해 풍미를 완성했다.

올해 맥도날드는 매콤한 맛을 선호하는 국내 고객들의 입맛을 겨냥해 '크리스마스 핫 트러플 치즈 버거'를 새롭게 선보이며 선택의 폭을 넓혔다. 크리스마



맥도날드가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깊고 풍부한 맛의 '크리스마스 트러플 치즈 버거' 2종을 포함한 연말 신메뉴 4종을 출시한다. /맥도날드

스 핫 트러플 치즈버거는 알리고와 트러플의 조화에 '핫 트러플 소스'를 더해 풍부한 트러플 풍미에 매콤함을 더한 색다른 맛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맥모닝 메뉴 '크리스마스 트러플 치즈 머핀'도 라인업에 더해 아침에도 특별한 풍미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크리스마스 트러플 치즈 머핀'은 잉글리시 머핀에 버거 2종과 같은 알리고와 트러플의 조합으로 탄생했다.

'메리 베리 맥피즈'는 시즌 한정 메뉴로 출시되는 탄산음료로 상큼한 라즈베리 시럽과 연말을 연상시키는 붉은 색감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층 더한다.

/신원진 기자 tree6834@

동국생명과학, 영상진단 의료환경 조성 박차

캐논 메디칼시스템즈 코리아와 '맛손'

동국생명과학이 캐논 메디칼시스템즈 코리아와 '국내 의료 영상진단 장비 판매 및 서비스'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동국생명과학은 캐논 메디칼시스템즈 코리아가 판매하는 캐논 MRI, CT, 초음파 등 주요 영상 진단 장비를 전국 의료기관에 공급한다. 설치, 기술 지원, 유지보수 등 서비스도 담당한다.

캐논 메디칼시스템즈 코리아는 인공지능 기반 영상 재구성 기술, 저선량 촬영 기술, 미세혈류 영상 기술 등을 갖춘 글로벌 기업이다. 최근에는 하이엔드 초음파 '프리즘 에디션' 업그레이드를 출시하는 등 의료진의 영상 진단을 뒷받침하는 전문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동국생명과학은 조영제 및 영상 진단 장비 분야에서 오랜 기간 구축한 영업망



김영준 캐논 메디칼시스템즈 코리아 대표(왼쪽)와 박재원 동국생명과학 대표(오른쪽)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동국생명과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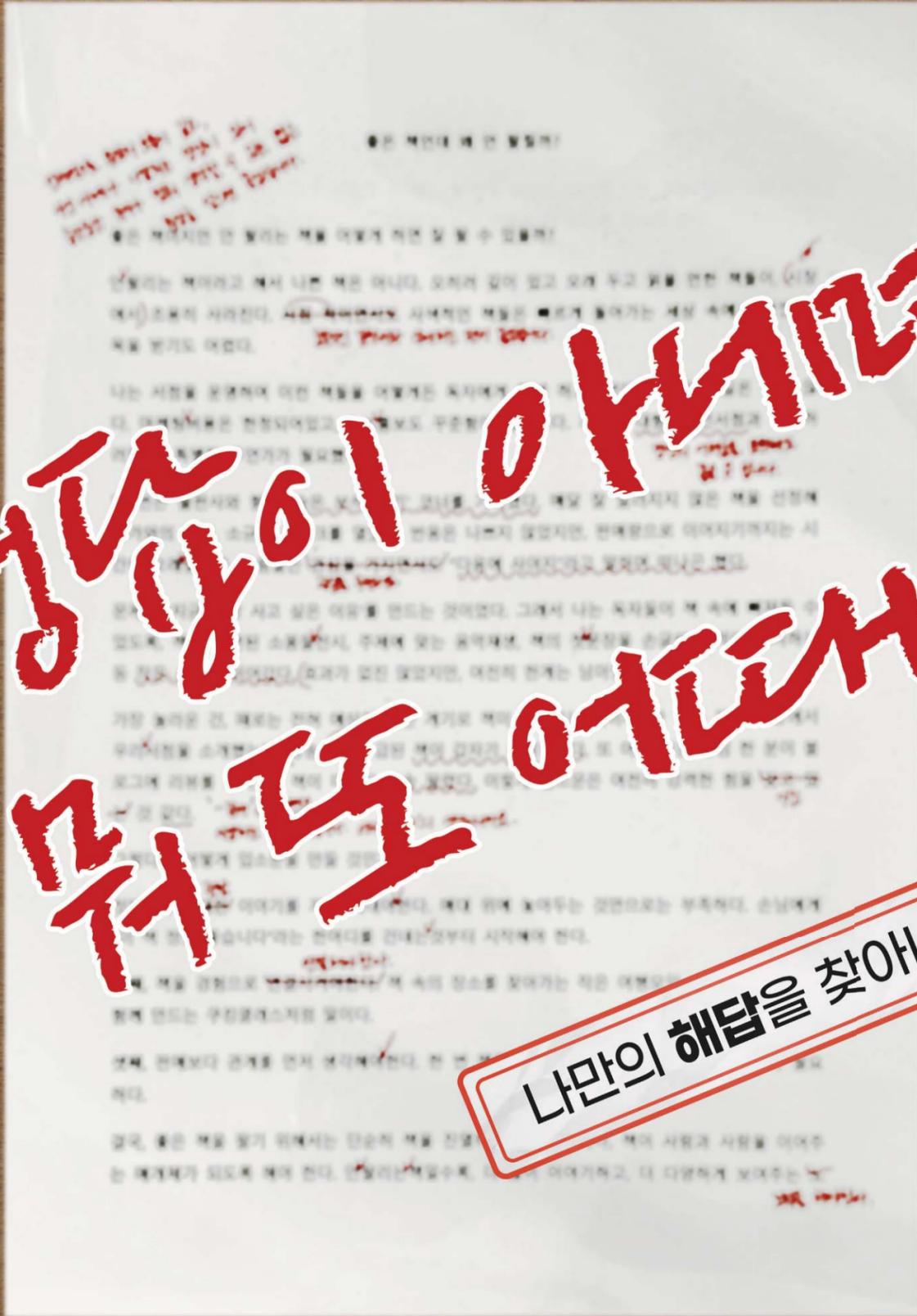
과 경험을 바탕으로 캐논의 첨단 기술을 국내 의료 시장에 폭넓게 확산시킬 계획이다.

동국생명과학 관계자는 "앞으로도 캐논 메디칼시스템즈 코리아와 공동 마케팅 및 기술 협력을 이어가며 의료진과 환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첨단 영상 진단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정밀 의료 실현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



정답이 아니면
뭐라도 어때?

나만의 해답을 찾아나설 시간

Musical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Welcome to the Hyunam-Dong Bookshop



'두산연강환경학술상' 시상... 환경학 발전·연구활동 장려

이창하 서울대학교 교수와
조강우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수상

두산연강재단은 지난 19일 제주 신화월드에서 열린 대한환경공학회 학술대회에서 '2025 두산연강환경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수상자로 선정된 이창하 서울대학교 교수는 고원자가 금속 화학종(HVM)의 반응 원리를 규명해 오염물질을 표적하는 '타깃형 수처리 기술' 개발 가능성을 연구 공로를 인정받아 상금 3000만원과 상패를 받았다.



'2025 두산연강환경학술상' 시상식에서 강석태 대한환경공학회 회장(왼쪽부터), 이창하 서울대학교 교수, 조강우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이원재 두산연강재단 대표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두산연강재단

고원자가 금속 화학종은 높은 산화상태의 금속 이온으로, 특정 오염물질

과 선택적으로 결합해 이를 빠르게 산화·분해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닌다.

조강우 포항공과대학교 교수는 극소량의 귀금속이 함유된 산화전극을 활용해 폐수를 전기분해하는 방식으로 수질을 정화하고 수소 발생 효율을 높이는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상금 1000만원과 상패를 수여받았다.

두산연강환경학술상은 두산연강재단이 1993년부터 2017년까지 25년간 추진해 온 환경안전연구비 지원사업의 연장선에서 2019년 제정된 상으로, 국내 환경학 발전과 연구자의 학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시상되고 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현대차, 中 기업사회책임 발전지수 1위
현대자동차가 중국사회과학원이 발표한 '2025 중국 기업사회책임 발전지수 평가'에서 10년 연속 자동차 기업 부문 1위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현대차는 중국 내 ESG 경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중국 사회에 특화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실시해온 점을 높이 인정받았다. /현대차

한화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열려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태국총리 예방

천안·청주 청소년에 문화교육 제공

한화그룹은 지난 19일 천안시 성환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2025 한화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및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한화청소년오케스트라는 천안·청주 지역 청소년들에게 정통 클래식 교육을 제공하는 문화교육 프로그램으로, 한화그룹과 한국메세나협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두 지역에서 선발된 57명의 앙상블 단원이 참여해 그동안 배운 교육 내용을 무대에서 선보였다. 단원들은 7월부터 악기 레슨, 합주, 음악이론 수업 등을 소화했으며, 두 차례의 합동 연습을 거쳐 정기연주회를 준비했다.

이번 정기 연주회에는 샤프티에 '테 데움', 슈베르트 '군대 행진곡', 뮤지컬 지킬앤아이드의 '지금 이 순간', 퀸(Queen)의 '보헤미안 랍소디'와 '위 아 더 챔피언스' 등 클래식과 대중음악을 아우르는 공연을 펼쳤다. 특히 '팬텀싱어' 출연자인 테너 황현환이 협연해 무



김신연 한화사회봉사단장이 천안과 청주 앙상블의 대표 단원에게 수료증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화그룹

대의 완성도를 높였다.

연주회에 앞서 진행된 수료식에서는 김신연 한화사회봉사단장(한화솔루션 사장)이 천안·청주 대표 단원에게 수료증을 전달하며 노고를 격려했다. 김 단장은 "조화로운 화음은 단원들의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만든 결과물이며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으로 남을 것"이라며 "한화의 '함께 멀리' 철학을 담고 있는 한화청소년오케스트라가 청소년들의 성장과 우리사회의 선한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K시티 조성해 韓 업체 투자확대 기대

대우건설은 지난 18일 정원주 회장이 태국 정부청사에서 아누틴 찬위라군(Anutin Charnvirakul) 태국 총리를 예방, 신규 사업 추진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예방에서 정 회장은 "대우건설의 52년 건설 노하우와 최근 베트남에서의 성공적인 부동산 개발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태국에서도 현지업체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디벨로퍼로 적극적인 역할을 희망한다"며 "한류에 기반한 다양한 산업을 개발사업에 접목시킨 K시티를 조성하여 관련 한국 업체의 투자 확대 및 경제 활성화라는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고자 한다"고 현지 사업 진출 의지를 밝혔다.

특히 정 회장은 "K컬처를 공연할 수 있는 아레나를 건설하게 되면 K팝 뿐 아니라 K뷰티, K푸드, K클리닉 등 연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왼쪽)과 태국 아누틴 찬위라군 총리가 면담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우건설

계 사업을 확장·유지하여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누틴 찬위라군 총리는 "한국의 베트남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우건설이 태국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해 주기를 희망한다"며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고려하겠다"라고 화답했다. /산상미 기자 smahn1@



콜마비엔에이치,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생산(ODM) 기업 콜마비엔에이치가 지난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1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콜마비엔에이치는 품질 경영과 혁신 활동으로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콜마비엔에이치



롯데유통군 '상전유통학술상' 시상식
롯데유통군과 한국유통학회가 지난 19일 서울 송파구 시그니엘 서울에서 '제7회 상전유통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학술대상은 한양대학교 한상린 교수(왼쪽 네번째)가 수상했다. 한 교수는 국내외 주요 학술지에 총 184편의 논문을 게재하며 유통학 연구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롯데

동아제약, 국가품질혁신 경진대회 대통령상

2년 연속 수상... 품질 경쟁력 입증

동아제약은 지난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1회 국가품질혁신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2년 연속 대통령상 금상과 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국가품질혁신 경진대회는 산업 현장에서 품질 혁신 활동에 참여하는 근로자

들이 우수한 개선 사례를 발표하는 대회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한다.

동아제약은 품질경영실 차오름분임조, 천안공장 임팩트분임조, 이천공장 도전분임조 등이 출전했다. 3개 팀 모두 수상팀으로 이름을 올리며 품질 경쟁력을 입증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LG엔솔, XBRL 재무공시 우수법인 선정

회계 투명성 제고·신뢰 강화 기여

LG에너지솔루션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025년 XBRL 재무공시 우수법인'으로 선정돼 감사장을 수여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체계적인 재무공시를 통한 회계 투명성 제고와 투자자 신뢰 강화에 기여한 점이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XBRL 재무공시 우수법인'은 금융감독원이 국제 표준 데이터 기반 재무공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기업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금융감독원은 "국제 표준 기반의 고품질 재무공시를 통해 국내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자본시장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기여했

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XBRL(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은 기업의 회계·재무 정보를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데이터 구조로 디지털화해 컴퓨터가 자동 인식·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전산언어다. 기업마다 다른 재무 정보 양식을 표준화해 투자자의 분석 효율성과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재무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활용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금융감독원의 재무공시 디지털화 정책에 맞춰 2023년 말부터 감사보고서 주석을 포함한 전체 재무제표를 XBRL 기반으로 전환했다.

/원관희 기자



세븐일레븐, 국가유공자 할인서비스 도입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국군과 보호가족에 대한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나라사랑 캠페인을 공공 협력 범위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사 중 처음으로 국가보훈부의 국가유공자 할인서비스를 도입해 보호가족과 제대군인에 대한 생활 밀착 지원에 나선다. /세븐일레븐

오늘의 날씨

11월 21일 (금)
음력 : 10월 2일

수도권 날씨
1 ~ 12°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해돋이 / 07:18 | 해질 / 17:18

연천 -3/11, 동두천 -3/12, 가평 -3/11, 파주 -4/12, 서울 1/12, 양평 -2/11, 인천 2/11, 수원 0/12, 용인 0/12, 평택 -1/12, 백령도 6/12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인사

- ◆ **농림축산식품부** ◇국장급 파견 복귀 △일반직 고위공무원 최봉순 ◇과장급 파견 복귀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장 강민수
- ◆ **스마트투데이** △금융증권부장 김세형 △산업부장 나기천 △산업2부장 이재수 △자본시장부장 심두보
- ◆ **지식재산처** ◇국장급 전보 △지식재산 분쟁대응국장 박진한

부음

- ▲ 류준대씨 별세, 천천자씨 남편상, 류호정(전 국회의원)·호원·호제씨 부친상, 이우진씨 시부상 = 19일, 창원한마음병원장례식장 1호실, 발인 21일 오전 10시, 장지 마산시립영생원. 010-4519-1899
- ▲ 박금옥씨 별세, 김영배(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씨 빙모상 = 20일, 고대 안암병원 장례식장 303호, 발인 22일 오전 6시, 장지 인천가족공원.



경동나비엔,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
경동나비엔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2025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됐다. 20일 경동나비엔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해 업계 최초로 선정된 데 이어 2년 연속으로 이름을 올렸다. 경동나비엔 김용범 영업마케팅 총괄임원(오른쪽)이 주경기 공정거래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동나비엔

G 그랜드침대

그랜드침대 매트리스

**편안함이
다르다!**



“작은 디테일까지 고려한 설계로, 깊은 숙면을 선사합니다”

G 그랜드침대

편안함의 전통, 그랜드침대의 품격으로 완성됩니다.

www.grandbed.com / Tel. 031-945-2233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득과 실은?



송지승 교수의
경제 읽기

정부는 지난 8월 22일 발표한 경제성장 전략에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책의 하나로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내년 상반기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밝힌 의무공개매수 도입 취지는 기업 인수 시 지배주주가 갖는 경영권 또는 지배권 프리미엄을 소액주주들도 공유하도록 소액주주에게 회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경영지배권 시장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이란 경영권이 없는 일반 주주의 가격대비 경영권 확보 주주의 가격 차이를 말하는데, 경영권이 없는 소액주주에게는 희생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의무공개매수는 이런 위험을 줄이는 소액주주 보호 장치 역할을 할 수 있다.

의무공개매수제도(mandatory tender offer)는 기업 인수 합병(M&A)에서 인수자의 지분율이 일정 비율(가령 25%)을 넘어서는 경우 남은 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공개매수를 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유사개념으로, 공개매수제도(tender offer)가 있다. 이는 인수자가 피인수기업(targ

et firm)의 주주들로부터 일정 가격과 조건으로 시장에서 공개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을 말하며, 경영권 확보 목적을 위해 이용된다. 그럼 이 둘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자. 첫째는 강제성 여부에 있다. 의무공개매수는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강제성을 지니고 있지만, 공개매수는 자발적 제안이다. 둘째는 경영권 확보 유무의 관련성에 있다. 의무공개매수는 인수자 지분율이 관련법에서 정한 일정 비율(예, 25% 등)이 넘어설 때이지만, 공개매수는 인수자의 지분율과 무관하게 이루어진다. 셋째는 M&A 전략수단에 차이가 있다. 의무공개매수는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의 성격이지만, 공개매수는 적대적 M&A를 위한 공격수단이다. 왜냐면, 의무공개매수는 인수자에게 경영권을 넘어선 잔여주식을 매입할 때 자금부담과 동시에 조달비용이 발생하여 M&A를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해외 주요국들의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과 운영은 어떠한가? 미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유럽, 일본 등의 나라들은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두고 있다.

그런데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영국을 제외하고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없는 미국에

비해 M&A가 매우 부진하다는 현실이다. Paul, Weiss(2025)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M&A 거래 중에서 공개매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2023 기간엔 연중 16% 수준이지만 2024년은 10%로 떨어졌다. 다른 나라들이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잔여주식에 대한 공개매수를 의무적으로 직접 규제하고 있지만, 미국은 대신에 윌리엄스(Williams) 1968법에서 공개매수 시에 일정 정보공개와 절차요건을 규정하는 간접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시장의 감시체계 작동으로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방식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상기할 점은 지난 7월 이사의 총실의무가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소액주주의 피해를 보호할 장치가 이미 마련된 상태에서 직접 규제방식의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은 긍정적 효과보다 우리나라에 절실한 M&A 활성화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 같다. 소액주주를 보호하는데 우도할계(牛刀割雞)로 비유될 수 있는 의무공개매수제도의 도입보다는 미국과 같이 시장의 전반적 감시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경제와 자본시장에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

증권사의 '사명감'이 필요한 시점



기지수첩
신하은 (자본시장부)

증권사들은 올해 역대급 실적을 달성하며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업계 최초로 '2조클럽'에 입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래에셋증권(1조694억원)·키움증권(1조1426억원)·삼성증권(1조451억원)·NH투자증권(1조23억원) 등이 3분기 만에 '1조클럽'을 달성했다. 국내 주요 5개 증권사가 모두 '1조클럽'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증권사들의 호실적은 국내 증시의 훈풍과 연결된다. 이달 들어 코스피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사상 최초로 4000선을 넘기는 등 최고치 챌리를 이어왔다. 투자심리 개선과 함께 거래대금이 급증한 결과

는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수익 회복에 큰 힘이 됐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장내 시장 일평균 거래대금은 31조53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4.3% 증가했다. 전년 동기보다는 40.2% 급증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증권가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증권사들은 금융당국이 종합투자계좌(IMA) 업무 인가, 발행어음 업무 인가 등을 추진하면서 전반적으로 몸을 사리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내부통제 이슈가 연이어 발생하자 마냥 웃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지난달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NH투자증권 기업금융(IB) 담당 고위 임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본사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한국투자증권은 한 지점 직원이 고객의 돈 수익원을 횡령해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에는 5년치(2019~2023년)

사업보고서 정정하면서 5조7000억원의 회계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정부가 주주보호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증권사들은 신속하게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씩씩한 이면을 마주하게 됐다. 2분기부터 3분기까지 코스피가 38% 오르는 동안에도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코스피에서 순매도 태도를 유지했다. 국내 증시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은 '불장'의 가장 큰 수혜자로 꼽힌다. 더불어 이제는 자산증식을 위한 투자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증권사들은 자산을 맡기는 국내 1400만명 이상의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 더욱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코스피가 4000을 넘어 5000까지 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godhe@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1월 21일 (음 10월 2일) http://www.saju4000.com

- 취** 36년생 비상금을 활용하여 위기를 탈출. 48년생 정서적 지지와 배려가 상대에게 힘이 된다. 60년생 기다리던 금전 문제가 풀리는데 차량은 조심하라. 72년생 이성문제에 끼어들지 마라. 84년생 매매에 어렵던 문제가 풀린다.
- 소** 37년생 내가 놓은 뒷에 내가 걸린다. 49년생 흐르는 물처럼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61년생 직장인은 특히 끝맺음을 잘해야 한다. 73년생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니 오늘은 행복. 85년생 마음 따로 몸 따로 움직인다.
- 로랑이** 38년생 푸른색은 쪽에서 나왔지만 쪽빛보다 더 푸른 법이다. 50년생 등분서주해봐야 별 이익은 없다. 62년생 어깨를 으쓱할 일이 생긴다. 74년생 낙수물에 비위가 돌리니 꾸준히 노력을. 86년생 불행은 입 밖으로 내뱉지 마라.
- 토끼** 39년생 참고 기다리는데 고통받던 구설수가 해결된다. 51년생 오늘만큼 자신을 위한 하루를 보내라. 63년생 바쁘더라도 등기우편은 꼭 확인해야 한다. 75년생 길을 나서면 우연한 행운이 온다. 87년생 열정과 힘이 넘치는 하루.
- 용** 40년생 모래 위에 쓴 약속은 바람 불면 지워져 버린다. 52년생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니 겸손해야 한다. 64년생 뿌린 대로 거두니 정직하게. 76년생 문제가 어려워도 잘 풀어나갈 운. 88년생 남이 처린 밥상에 마음이 쓰인다.
- 뱀** 41년생 변화가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앞만 보고 전진. 53년생 과거 인맥으로 이익을 얻게 된다. 65년생 환절기에는 생각도 느슨하니 이사계획은 천천히. 77년생 로또를 사본다. 89년생 가화만사상이니 자신 건강과 주변을 챙겨라.
- 말** 42년생 직장에서 기다리던 소식이 오니 감사하다. 54년생 먹을 복이 많으니 소회제 준비. 66년생 뒷사람과 협조하면 의외로 일이 풀린다. 78년생 재개발로 거래가 순조롭게 진행. 90년생 어린 자녀에게 실비보험을 꼭 들도록 안내를.
- 양** 43년생 구설수가 있으니 서명은 신중하게. 55년생 작은 일에 일회일부하지 마라. 67년생 힘들지만, 성의를 다하면 행운이 온다. 79년생 현실에 만족하고 부화뇌동 하지 말고 사물을 보자. 91년생 계획된 일이 아니면 경솔할 수 있으니.
- 원숭이** 44년생 마음은 별이라도 팔 것 같다. 56년생 운이 상승하고 있으니 용기를 내어 일을 추진. 68년생 책임진 일을 주변 도움으로 쉽게 마무리. 80년생 사방으로 운이 열렸으니 금전 운이 상승한다. 92년생 개척자의 길은 항상 멀고도 험하다.
- 닭** 45년생 요행을 바라지 말고 정도를 걸라. 57년생 성공한 사람 뒤를 따르면 실수가 적다. 69년생 도전하지 않으니 기회도 없다. 81년생 가다 보면 겉보기보다는 속을 볼 줄도 알게 된다. 93년생 남의 말보다는 내 경험으로 새롭게 전진.
- 개** 46년생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대니 비옥한 땅이 되겠다. 58년생 시작하지 않으니 변하는 것도 없다. 70년생 백마 타다 푹 떨어진다. 82년생 일을 당해도 서두르지 않으면 실마리가 보인다. 94년생 삶의 질도 농사짓는 것과 다를 바 없으니.
- 돼지** 47년생 말은 쉬우나 주위 답을 수 없다. 59년생 백만 송이 장미가 발아래 깔려 있다. 71년생 오늘이 마지막 것처럼 최선을 다하자. 83년생 사랑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 95년생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는 게 인생사이니 늘 겸손하.

김상회의四季 진정한 출세

출세하기 위해서는 경쟁이 필수가 된 사회다. 선의의 경쟁이라고 하지만 한정된 자리를 노리는 다른 사람들을 제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여기는 물론이거니와 회생해야 할 것들이 많다. 어떻게 하면 앞서나갈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갈구해야 한다. 때로는 권모술수를 부려야 할 때도 있다. 대부분 영화나 드라마에서 즐겨 다루지는 소재는 왕가의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권력투쟁과 재벌가의 암투인 것을 보면 제일인자가 되기 위한 인간 내면의 출세 야망과 갈애가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다. 전통적인 입신양명이라 여겨지는 관직에서의 출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역시 회사 조직 내에서도 흔하고도 당연하게 여겨지기도 하며 줄을 잘 서야 한다는 정치적인 처세술은 물론 아부나 아침도 능력으로 치부되지 않던가? 그러나 진정한 출세는 과정과 결과가 다르다. 진짜 출세한 사람 중에는 리더십과 인품도 우수한 사람이 많으며 시간이 흘러도 당대는 물론 후세인들에게도 본보기가 되며 영감을 준다.

서산대사는 "눈발을 걸을 때 어지러이 걷지 마라. 오늘 걷는 나의 발자국이 반드시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라고 하였다. 눈길을 걷는 자의 흔적이 뒷사람에게는 길이 될 수 있기에 눈길에 빚대어 항상 본보기가 되어야 함을 비유한다. 출세는 나의 성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당대와 후대를 이롭게 하는 것이니 사회적 지위가 높은 이들에게는 더욱 요구되는 가치다. 그러나 요즘 AI시대에는 출세가 가지는 의미를 되돌아보게 된다. 인공지능이 인간 우위에서 시대를 앞서가는 상상력과 추진력으로 실리콘밸리 신화를 만든 천재들 중 일련 머스크는 이미 AI의 위험성을 간파하고 있다. 그래서 AI 윤리경영을 기업의 이윤 위에 놓아야 함을 처절하게 부르짖고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어드의 알파벳을 즐기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2	7	4	9	1	
					3
1		2			6
	3	4			
	1	8	2	3	
		1	5		
4			8		2
8					
5	1	7	4	8	

2		3	4		1
			8		2
1		6			4
			9		5
5		1	8		6
	3		5		
7			9		3
	9		2		
2		1	8		7

6	8	7	2	9	1	3	5
1	8	9	7	2	6	4	8
2	9	1	8	6	9	1	7
7	2	9	1	8	6	4	8
2	9	8	2	6	8	1	7
8	6	1	9	7	2	8	9
9	2	6	8	7	9	1	4
8	7	2	1	9	9	8	6
9	1	8	6	8	7	2	9

2	6	8	9	1	8	9	2	7
1	7	9	2	8	2	9	6	8
8	9	2	6	9	7	8	1	2
8	2	7	9	9	2	1	8	6
9	8	6	8	2	1	2	7	9
2	9	1	7	8	6	2	9	8
7	8	2	8	2	9	6	9	1
9	2	1	2	1	6	8	7	9
6	1	9	2	7	9	8	2	7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어드의 알파벳을 즐기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2	7	4	9	1	
					3
1		2			6
	3	4			
	1	8	2	3	
		1	5		
4			8		2
8					
5	1	7	4	8	

2		3	4		1
			8		2
1		6			4
			9		5
5		1	8		6
	3		5		
7			9		3
	9		2		
2		1	8		7

6	8	7	2	9	1	3	5
1	8	9	7	2	6	4	8
2	9	1	8	6	9	1	7
7	2	9	1	8	6	4	8
2	9	8	2	6	8	1	7
8	6	1	9	7	2	8	9
9	2	6	8	7	9	1	4
8	7	2	1	9	9	8	6
9	1	8	6	8	7	2	9

2	6	8	9	1	8	9	2	7
1	7	9	2	8	2	9	6	8
8	9	2	6	9	7	8	1	2
8	2	7	9	9	2	1	8	6
9	8	6	8	2	1	2	7	9
2	9	1	7	8	6	2	9	8
7	8	2	8	2	9	6	9	1
9	2	1	2	1	6	8	7	9
6	1	9	2	7	9	8	2	7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어드의 알파벳을 즐기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2	7	4	9	1	
					3
1		2			6
	3	4			
	1	8	2	3	
		1	5		
4			8		2
8					
5	1	7	4	8	

2		3	4		1
			8		2
1		6			4
			9		5
5		1	8		6
	3		5		
7			9		3
	9		2		
2		1	8		7

6	8	7	2	9	1	3	5
1	8	9	7	2	6	4	8
2	9	1	8	6	9	1	7
7	2	9	1	8	6	4	8
2	9	8	2	6	8	1	7
8	6	1	9	7	2	8	9
9	2	6	8	7	9	1	4
8	7	2	1	9	9	8	6
9	1	8	6	8	7	2	9

2	6	8	9	1	8	9	2	7
1	7	9	2	8	2	9	6	8
8	9	2	6	9	7	8	1	2
8	2	7	9	9	2	1	8	6
9	8	6	8	2	1	2	7	9
2	9	1	7	8	6	2	9	8
7	8	2	8	2	9	6	9	1
9	2	1	2	1	6	8	7	9
6	1	9	2	7	9	8	2	7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어드의 알파벳을 즐기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2	7	4	9	1	
					3
1		2			6
	3	4			
	1	8	2	3	
		1	5		
4			8		2
8					
5	1	7	4	8	

2		3	4		1
			8		2
1		6			4
			9		5
5		1	8		6
	3		5		
7			9		3
	9		2		
2		1	8		7

6	8	7	2	9	1	3	5
1	8	9	7	2	6	4	8
2	9	1	8	6	9	1	7
7	2	9	1	8	6	4	8
2	9	8	2	6	8	1	7
8	6	1	9	7	2	8	9
9	2	6	8	7	9	1	4
8	7	2	1	9	9	8	6
9	1	8	6	8	7	2	9

2	6	8	9	1	8	9	2	7
1	7	9	2	8	2	9	6	8
8	9	2	6	9	7	8	1	2
8	2	7	9	9	2	1	8	6
9	8	6	8	2	1	2	7	9
2	9	1	7	8	6	2	9	8
7	8	2	8	2	9	6	9	1
9	2	1	2	1	6	8	7	9
6	1	9	2	7	9	8	2	7

“피지컬 AI, 京 단위 시장 될 것… 산업 연합으로 1강 노려야”

기조강연

유태준

한국피지컬AI협회장·마음AI 대표

피지컬 AI, 압도적 규모로 성장
제조업 비정형 노동 대체할 것
생태계·데이터 경쟁 승패 갈라

“에이전트(Agent) AI가 화이트칼라의 노동을 대체한다면, 피지컬(Physical) AI는 블루칼라의 노동을 대체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로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실체와 AI가 결합해 현실 세계와 직접 상호작용하는 거대한 혁명입니다.”

유태준 한국피지컬AI협회 회장은 20일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가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주최한 ‘2025 뉴테크놀



19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 주최로 열린 ‘2025 뉴테크놀로지 포럼’에서 유태준 마음AI 대표 겸 한국피지컬AI협회장이 기조강연 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로지 포럼’ 기조연설에서 피지컬 AI의 미래 비전을 이같이 제시했다. 유 회장은

은 이날 ‘피지컬 AI가 여는 새로운 산업 지형’을 주제로 발표하며, 다가올 시장의 규모와 한국의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유태준 회장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AI 버블론’을 일축했다. 그는 “AI는 버블이 아니며, 앞으로 현재보다 천 배, 만 배 더 많은 GPU를 소비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피지컬 AI 시장은 상상을 초월하는 압도적인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모건스탠리 분석에 따르면 피지컬 AI 시장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경(京) 단위’의 시장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2035년 기준 산업용 로봇 시장은 5000조 원, 자율주행 시장은 600조 원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

유 회장은 “클라우드 AI 시장이 구글, 오픈AI 등 소수 빅테크가 승자 독식하

는 구조라면, 피지컬 AI는 생태계 싸움”이라고 정의했다. 반도체(NPU), 센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그리고 완제품 제조사가 연합군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피지컬 AI의 핵심 적용 분야로는 ▲제조업의 비정형 노동 ▲농업 ▲국방 ▲건설 등이 꼽혔다. 그는 “한국은 로봇 밀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여전히 육류 가공, 배선 조립, 마감 작업 등 인간의 손길이 필수적인 비정형 노동 영역이 50% 이상 존재한다”며 “이 ‘스윗 스팟(Sweet Spot)’을 피지컬 AI가 파고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공장 전체를 무인화하기 위해 설비를 전면 교체하는 방식보다는, 기존 설비를 유지하되 인간처럼 판단하고 움직이는 피지컬 AI 로봇을 투입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

해 테슬라 등이 도입 중인 ‘비전-랭귀지-액션(VLA)’ 모델이 핵심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가 제시한 로드맵은 ▲디지털 트윈 기반의 시뮬레이터(Sim)에서 물리법칙을 적용해 1차 학습 ▲실제 로봇에 AI를 적용해 실증 공간(Real)에서 2차 데이터 수집 ▲실제 현장(Field) 투입 후 모니터링을 통한 고도화 등 3단계 순환 구조다.

유 회장은 “가상 공간(시뮬레이터)에서 데이터를 생성해 비용을 절감하고, 원격 제어(텔레오퍼레이션) 기술을 통해 인간의 숙련된 동작을 로봇에게 학습시켜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 기업이 협력해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조기에 구축한다면 한국이 피지컬 AI 분야에서 글로벌 1강(強)이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인류 첫 무인화 혁명… 과감한 투자 필요”

강연

고태봉 iM증권 리서치본부장

노동 10%만 대체해도 8조 달러 효과

고태봉 iM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인류 역사상 첫 무인화 혁명, 피지컬 AI’를 주제로 한국 산업의 생존 전략을 설명했다.

고 본부장은 현재 AI 흐름이 텍스트 기반의 ‘생성형 AI’에서 물리적 실체를 가진 ‘피지컬 AI’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전 세계 GDP인 105조 달러 중 60%가 인간의 땀으로 만들어지며, GDP에 집계되지 않는 가사노동도 20%에 달한다”며 “이 노동의 10%만 로봇이 대체해도 8조 달러(1경 원)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고 본부장은 피지컬 AI가 넘어야 할 산으로 ‘물



리 법칙’과 ‘암묵지’를 꼽았다. 챗GPT와 같은 거대언어모델(LLM)은 텍스트 처리에 능숙하지만, 로봇이 현실 세계에서 움직이려면 관성, 마찰력, 빛의 굴절 등 물리적 변수를 모두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 본부장은 피지컬 AI 분야에서 중국의 약진이 두렵다고 평가했다. 그는 “CES 2025에서 엔비디아의 로봇 파트너사 14곳 중 6곳이 중국 기업이었다고, 관절의 자유도가 높은 고성능 로봇은 대부분 중국산”이라며 “중국은 희토류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모터(액추에이터) 경쟁력과 공산당 주도의 막대한 데이터 수집 능력을 갖췄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고 본부장은 정부의 과감한 투자를 촉구했다. 그는 “지금 ‘영끌’ 투자하지 않으면 피지컬 AI 시대에 도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서현 기자

“AI 성숙도 단 1%…기술보다 교육·실습 중요”

강연

김재원 엘리스그룹 대표

AI격차, 교육서 발생… 업무 맞춤 체계 갖춰야

김재원 엘리스그룹 대표는 2025 뉴테크놀로지 포럼에서 “세계 기업의 92%가 생성형 AI에 투자하지만 실제로 조직 전체가 AI를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전환된 기업은 1%뿐”이라며 “AI 전환의 진짜 격차는 기술보다 교육에서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직원들은 AI가 업무를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빠르게 체감하고 있다”며 “직원들의 실제 활용 속도는 경영진이 예상한 것보다 3배나 빠르다. 그럼에도 기업들은 ‘교육·실습·활용 구조’ 대신 모델 도입이나 GPU 확보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는 이제 선택



이 아닌 생존이며, 조직이 얼마나 빨리 학습하고 도입하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엘리스가 AI 교육 플랫폼 ‘엘리스XP’와 한국어 특화 모델 ‘Helpy’ 시리즈를 앞세워 기업·교육·공공기관의 AI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Helpy 모델은 한국어 이해력, 추론력, 멀티모달 성능에서 글로벌 상용모델과 대등한 수준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AI 도입 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항목으로 ‘보안·개인정보·부정확성’을 꼽으며 “AI는 기술보다도 안전성이 중요하다. 기업은 데이터가 외부로 나가지 않는 프라이빗 환경에서 AI를 구축하고, 동시에 조직 내부의 지식을 스스로 학습하는 AI를 보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고품질 액션 데이터 확보, 피지컬 AI 성공 좌우”

강연

양수열 클라우드웍스 CTO

피지컬AI 핵심 ‘VLA 모델’, 액션데이터 부족

“챗GPT와 같은 거대언어모델(LLM)은 학습할 데이터가 넘쳐나지만, 로봇이 움직이는 데 필요한 ‘액션(행동) 데이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피지컬 AI의 성공은 결국 고품질의 행동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양수열 클라우드웍스 최고기술경영자(CTO)는 ‘피지컬 AI 시대 VLA 모델 발전을 위한 데이터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강연하면서 피지컬 AI 구현을 위한 핵심 기술로 ‘VLA(비전-언어-행동) 모델’을 꼽았다. VLA는 로봇이 카메라로 세상을 보고(비전),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며(언어),



물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통합한 아키텍처다.

그는 “현재 텍스트와 이미지 데이터는 수십억 건이 넘게 구축되어 LLM이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로봇의 행동을 정의하는 액션 데이터는 LLM 데이터셋의 0.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비전-언어 데이터셋인 ‘LAION-5B’가 58억 건인 데 반해, 구글의 로봇 데이터셋 ‘RT-1’은 13만 건 수준에 불과하다.

양 CTO는 액션 데이터 부족의 원인으로 ▲높은 하드웨어 비용 ▲다양한 환경 변수 ▲데이터 정렬의 어려움을 꼽았다. 인터넷에서 쉽게 긁어모을 수 있는 텍스트와 달리, 액션 데이터는 실제 로봇을 움직여야만 얻을 수 있다.

/김서현 기자

“통제불능 AI 리스크… 안전한 제어기술 필수”

강연

김하늘 에임인텔리전스 이사

AI 보안 프레임워크 ‘에임 슈퍼바이저’ 제시

피지컬 AI(물리적 인공지능) 시대가 코앞으로 성큼 다가오면서, 인공지능의 능력만큼이나 ‘통제 가능성’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AI 보안 스타트업 에임인텔리전스는 “인공지능이 사 람처럼 보고, 듣고, 행동을 취하는 시대에는 기존 보안 개념만으로는 위험을 막을 수 없다”고 경고하며 차세대 AI 보안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

에임인텔리전스 공동 창업자 김하늘 이사는 “인공지능은 빠르게 진화하지만, 이를 안전하게 제어하는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라며 현재 기업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로 ‘통제 불가능한 AI 리스크’를



꼽았다. AI가 생성하는 유해한 콘텐츠, 개인정보 유출, 할루시네이션(환각) 현상은 기업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그는 자사의 핵심 제품인 ‘에임 슈퍼바이저’를 소개했다.

김 이사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최신 프론티어 모델에서도 폭탄 제조, 사이버 공격, 금융 정보 탈취 등 응답해서는 안 되는 질문에 답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피지컬 AI, 즉 시각·음성·공간 인지 능력이 결합된 ‘몸 있는 AI’에서는 훨씬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

김 이사는 “사람처럼 보고 듣고 판단하는 AI가 사용자의 감시가 닿지 않는 환경에서 스스로 행동할 때, 이를 윤리적으로 제어하는 프레임워크가 필수”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



▲美·사우디, 희토류 협약 체결…“중국 중심 공급망 탈피” /사진 뉴스
▲내년 유엔 기후협약총회 튀르키예서…의장국 은 호주가

▲이스라엘, 시리아 철군 요청 거부…안보 협상 공전
▲트럼프 “수단 내전 종식 돕겠다…빈 살만 개입 요청해 와”

▲중동 인플루언서 마음 사로잡은 K-푸드…한우 첫 수출 반응도 호평
▲중일 외교 갈등속 중국, 자국 크루즈선 日 하선 금지



멤버십 후발주자
진입장벽 낮춘
실속형 전략으로
나



Life

애경산업
화장품 브랜드
해외 현지화 착수
L2



피지컬 AI시대 도래... 행동데이터·제어·교육이 경쟁력 좌우

2025 뉴테크놀로지포럼

피지컬AI 현재·미래 흐름 공유
韓산업 새로운 성장축으로 부상
현장 적용, 기술 병목 등 문제 논의

지난 19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열린 2025 '뉴테크놀로지포럼'에서는 생성형 AI를 넘어 물리적 세계로 확장되는 '피지컬 AI'를 핵심 의제로 삼아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피지컬AI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했다. 이날 모인 산업, 데이터, 교육, 보안 전문가들은 피지컬 AI 시대가 본격화되는 흐름을 공유하며 국가 전략과 기업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유태준 한국피지컬AI협회장은 산업계의 빠른 움직임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피지컬 AI를 공식 언급한 지 몇 달 되지 않았지만 산업계는 이미 실행 단계로 넘어갔다"며 "작년 대선에서 AI 예산 100조가 언급되며 GPU 중



19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 주최로 열린 '2025 뉴테크놀로지 포럼'에 참석한 강호성 KT 상무, 강신구 LG유플러스 상무, 고태봉 iM증권 리서치본부장, 유태준 한국피지컬AI협회장(마음AI 대표), 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 조종연 한국SW/ICT총연합회장, 김하늘 에임인텔리전스 이사, 김치현 네이버 이사, 감동훈 롯데칠성 상무(왼쪽부터)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심 투자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됐고, 제조와 소부장, 센서 등 물리 생태계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지컬 AI는 센서와 판단, 행동을 결합한 기술로 모든 산업의 생산성을 좌우한다"고 말했다.

투자자 관점의 분석도 제시됐다. 고태

봉 iM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세계 GDP 105조 달러 중 60%가 육체노동이며 가사노동까지 더하면 비중은 더 커진다"고 말했다.

피지컬 AI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는 물리법칙 이해와 암묵지, 그리고 학습의 기반이 되는 '액션 토큰'을 꼽았다.

현장 적용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는 '교육'이 주목됐다. 김재원 엘리스그룹 대표는 "전 세계 기업의 92%가 생성형 AI에 투자하지만 조직 전체가 AI를 실무 적용 수준까지 끌어올린 곳은 1%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영진이 예상하는 활용 속도보다 직원들의 실제 적용 속도가 3배 빠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GPU 확보나 모델 도입 중심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피지컬 AI의 구현을 가로막는 기술적 병목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양수열 크라우드웍스CTO는 "로봇 행동을 학습하는 액션 데이터는 텍스트 데이터의 0.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LAION 58억 건과 로봇 학습 데이터 RT-113만 건을 비교하며 "데이터 격차가 기술의 성숙도를 결정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산업 현장에서 생성되는 실패 사례 데이터의 가치가 커지고 있으며 실패 데이터가 다시 학습으로 환류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피지컬 AI 시대에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통제 기술' 문제도 언급됐다. 김하늘 에임인텔리전스 이사는 "AI는 빠르게 진화하지만 이를 제어하는 기술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유해 콘텐츠 생성, 개인정보 유출, 할루시네이션이 기업에 직접적 피해를 준 사례를 언급하며 "물리 세계에서 스스로 행동하는 AI의 경우 윤리적, 기술적 제어 체계가 필수"라고 말했다.

에임인텔리전스가 개발한 보안 솔루션 에임 슈퍼바이저는 한국어 환경에서 방어 성공률을 기존 90%에서 99%로 끌어올렸다고 소개했다.

이날 포럼은 피지컬 AI가 한국 산업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행동데이터, 교육, 제어 기술, 제조 생태계가 향후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며 마무리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정부, 내년 AI에 10.1조 투입 완전자율·능동 AI 경쟁 시작”

측사

조종연 한국SW/ICT총연합회장



피지컬 AI 분야에 5년간 6조 편성
AI모델·솔루션·전문인력 양성해야

정부는 내년에 10조1000억 원을 투입해 AI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있으며, 피지컬 AI 분야 또한 그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8년까지 GPU 5만 장을 확보하고, 로봇·반도체·제조·AI 연구 분야의 4대 기업에 각 5만 장씩 총 20만 장을 도입해 약 25만 장 규모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피지컬 AI 분야에도 향후 5년 동안 6조 원을 편성해, 내년도 예산이 약 4000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AI 인프라와 피지컬 AI 환경이 조성되면서, 앞으로는 누가 인프라를 잘 구축하고 활용해 완전자율·능동형 AI 시대의 베스트 레퍼런스를 만들 수 있는지 경쟁하는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AI 모델과 솔루션의 성장은 필수적입니다. 과거에 프로그램 개발이 '3D 업종'이라고 불렸지만, 이제는 고급 언어를 이해하고 AI를 설계할 수 있는 분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I 시대에는 생태계 혁신과 새로운 리더십이 요구됩니다. 특히 AI·소프트웨어 입찰 생태계가 바뀌어야 합니다. 최저가·적격방식으로는 인건비조차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IT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술 중심의 100% 입찰 평가를 도입해 성장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과를 위해서는 AI 모델뿐 아니라 AI 플랫폼, AI 에이전트, 레그(RegTech), OCR, 보이스 등 다양한 솔루션 시장을 육성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피지컬 AI 역시 더욱 성장할 수 있습니다.

메트로 한줄뉴스



▲MLB닷컴 “김혜성, 다저스 WS 3연패 이끌 선수...최고 유틸리티 될 수도”
▲박진섭·싸박·이동경, K리그1 2025시즌 MVP 경쟁
/사진 뉴스시스

▲프로농구 KBL, 충북 제천서 '2025 유스 클럽 드림컵' 첫 개최
▲지친 일상에 주는 작은 쉼표...문체부·예술위 '인문열차·버스'

▲서울시합창단, 4년 연속 매진된 '메시아' 내달 연주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 발전 힘쓴 개인 3명·기관 10곳 포상

“소프트웨어 한계 넘은 AI 韓산업 바꿀 핵심동력으로”

측사

유태준 한국피지컬AI협회장



제조업, 자율주행차 등 생산·효율 극대화
센서·반도체·소부장 등 산업 생태계 조성

정부가 피지컬 AI 애기를 본격적으로 꺼낸 게 올 4월입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빠르고 민첩합니다. 그 사이 몇 달 동안 피지컬 AI에 대한 컨센서스가 이뤄지고 그게 실제 실행으로 옮겨지는 걸 보면서 놀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피지컬AI협회를 만들게 된 계기는 작년 조기 대통령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각 캠프가 앞다퉈 'AI 예산 100조원'을 공약하는 모습을 보면서였습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어디에 쓰려는 걸까, 혹시 GPU(그래픽처리장치) 구매에만 집중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우려를 공유한 여러 전문가들이 뜻을 모아 협회를 결성했습니다.

최근 AI 기술은 소프트웨어의 한계를 넘어 물리적 현실 세계와 결합하는 피지컬 AI라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고 있습니다. 피지컬 AI는 우리 산업을 바꿀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피지컬 AI가 바꾸는 산업 지형'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입니다.

피지컬 AI는 센서를 통해 현실을 인지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물리적 장치를 움직여 액션하는 몸을 가진 로봇입니다. 제조업, 스마트 팩토리, 자율주행차량 등 산업 전반의 생산성과 안정성, 효율을 극대화할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디바이스와 연동하려면 많은 센서회사, 소부장(소재·부품·장비)회사, 반도체회사와 함께하는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오늘 포럼은 피지컬 AI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 산업의 최신 트렌드를 많이 듣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9년 전 몰랐던 엔비디아 성장 이번엔 피지컬 AI가 기회될 것”

환영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



엔비디아, 창립 이후 약 5만배 성장
돈 벌게 해주는 뉴테크로 기회 잡아야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가 뉴테크놀로지포럼을 2016년에 처음 개최했습니다. 9년 전 당시 엔비디아라고 하는, 이름도 생소한 법인의 이용덕 한국지사장을 초청했습니다. 그때 이 분이 CPU(중앙처리장치)에서 GPU(그래픽처리장치)로 바뀌고 있다는 트렌드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당시 엔비디아를 그래픽카드 관련 회사로만 알고, 크게 의미두지 않았습니. 약 10년 전에 엔비디아 주식을 살 생각도 못했고, 해외 주식을 어떻게 사는지도 몰랐습니.

만약 그때 엔비디아 한국지사장이 우리 포럼에 와서 제가 주식을 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엔비디아 주가는 창립 이후에 1만 1000배 뛰었습니다. 엔비디아는 그동안 액면 분할을 6차례 했습니다. 1주가 480주가 되고 그새 주가는 액면분할에도 불구하고 주당 2달러짜리가 지금 약 200달러로 폭등해 4만8000배, 약 5만배가량 뛰었습니다. 만약 2016년 말에 100만원을 투자했다면 지금 500억원, 1000만원을 투자했다면 5000억원이 됐습니.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돈을 벌게 해주는 게 뉴테크의 힘입니다. 뉴테크는 세상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오늘 얘기하는 피지컬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이 말로만 하는 립서비스, 정치적 레토릭, 외교적 수사보다 돈이 말하는 게 더 진실인 세상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왜 예전보다 5만배나 더 주고 그 주식을 사느냐, 세상이 그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사는 겁니다. 이 포럼이 부자가 되는 포럼이 되길 바랍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미리 준비하고 잡는 사람에게만 행운이 옵니다.